

# 장로·목사

저술 및 번역 : 조동호



그 리 스 도 의 교 회 연 구 소

---

---

**ELDER AND MINISTER**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09, 2011,  
2018

258-15 Umsary Umsamyun Kyeryongsi,  
Choongnam, Korea 321-931  
Tel(042)841-9697

# 머리말

개신교에서 장로와 목사직에 관한 것만큼 그 성격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복잡한 것도 없다. 이 직책들에 대한 견해가 개신교단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그만큼 규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직책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가르침은 물론이고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개혁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인 추이(推移)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학창시절 이들 주제들에 대해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글도 쓰고 연구도 해 보았지만, 숙제가 풀리지 않는 경험들을 했었다. 그 이유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조차 역사적인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 또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지금도 상황은 그 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작금에 교회들이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들은 장로와 목사사이의 불편한 관계와 여성들에게 목사안수를 하는 것이 성서적이냐, 혹은 비성서적이냐에 관한 것이다. 이들 문제들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성서적인 가르침과 아울러 역사적인 추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2009년 7월 23일 서울 기독 대학교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협의회 주최로 개최된 제3차 여성안수 공청회에 참여할 발표문을 만들면서 쓰고 번역한 몇 개의 글들을 정리하여 소책자로 꾸몄다.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조금치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일 것이라 믿는다.

2009년 7월 24일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에서 조동호



# 차례

머리말 ..... 3

## 제1장 교회의 조직/7

1. 교회 ..... 8  
2. 장로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 9  
3. 집사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 11

## 제2장 장로들, 장로직/13

## 제3장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집사 선출/19

## 제4장 개신교 목사직에 대한 소고/21

## 제5장 목회/29

1. 목회에 대한 19세기 견해들 ..... 31  
2. 20세기 발전들 ..... 45  
3. 결론 ..... 61

## 제6장 여성목사 합당한가?/64

1. 유대교적 관점 ..... 64  
2. 성서적 관점 ..... 65  
3. 교회사적 관점 ..... 69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추이(推移)적 관점 ..... 73  
맺는 말 ..... 87

## 제7장 개신교 목사직과 여성 목사직의 근거들/90

1. 제도적 관점 .....	90
2. 구원론의 관점 .....	91
3. 교회사적 관점 .....	92
4. 여성 목사직의 당위성 .....	94

## **제8장 여성 목회/98**

1. 19세기 .....	98
2. 20세기 .....	101

## **제9장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에 관한 소고/112**

1. 유대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	113
2. 신구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	115
3.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	121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	124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	129
나오는 글 .....	130

## 제1장 교회의 조직

### 1. 교회

정의--'교회'란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라 한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뜻한다.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유이며(행 20:28), 그리스도의 몸이다(고전 12:27; 엡 1:23, 4:12, 5: 30).

구성원--교회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 그리스도의 교회였다. 이 말의 중요성은 소속감에 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마 16:16), 그분을 생명의 구세주로 자신의 중심에 모신 사람을 말한다(롬 8:9). 이렇게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롬 10:9) 믿는 자들이다. 성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롬 8:1)를 말하기도 한다.

기초--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엡 2:20). 예수께서도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라는 신앙고백의 반석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셨다(마 16:18). 따라서 성서가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 성서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행

적,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같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담긴 책이다. 그러므로 성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기초요, 헌법이다.

머리--그리스도는 교회의 몸 그 자체일 뿐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골 1:18). 앞에서 살펴 본대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를 말하고, 신자는 이 공동체의 구성원 즉 몸의 지체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의 사람" 곧 그리스도의 소유됨을 말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롬 8:1)를 말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신"(행 20:28) 그의 소유됨과, "그리스도의 몸"(엡 4:12) 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공동체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곧 몸이며, 이 몸의 머리 또는 교회 공동체의 대표는 그리스도이다.

## 2. 장로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장로의 유래는 장로라는 말이 성서 창세기에 이미 쓰여진 것만 보더라도(창 50:7), 그 역사가 인간의 집단 거주 때부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장로들은 모세를 도와 이스라엘 민중을 지도하기 위해서 뽑힌 70인 장로들과(민 11:16-30) 신약시대의 공회원 70인 장로들, 그리고 지방공회원의 장로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히브리 민족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예수를 재판한 것도 이들이었다(마 26:57-21:1).

초대교회의 장로 직분의 유사성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장로 직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회당의(지방공회원) 장로들은 지방 법관들이나 다름없었으며(눅 7:3), 회당 업무를 관리하였고, 파문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회당이 예배, 교육, 재판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회당의 장로들은 회당원들의 종교, 교육, 윤리 문제를 다루는 지방유지였음을 알 수 있다. 초대 예루



살렘 교회의 예배의식과 제도는 회당의 그것들과 거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초대 장로들 가운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행 15:1-6, 22-23; 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고 했는데(행 14:23),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를 피택하는 유래가 된 것으로 안다.

이들 장로들의 임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딤후 1:17).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의 임무는 양무리를 치고 감독하는 목양과 치리와 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사상에 나타난 장로에 관한 기록이나 변천을 보면, 장로 직책은 평신도의 직책이 아닌 사제 계급으로 발전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천주교회, 영국 성공회, 감독교회, 미국 감리교회, 독일 개신교회들에서 장로는 사제 계급인 정회원 목사를 말한다. 사제(priest)라는 말도 장로(presbyter)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믿어진다.

아무튼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사도나 선지자들 또는 준 사도들의 순회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이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개교회들이 전적으로 개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생존되어 왔으며, 2세기 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장로회의 당회장 격인 감독(현재의 목사에 해당됨)의 위치에 서면서 오늘날의 목사 개념의 목회자로 변천되어 왔다. 초대 교회사를 보더라도, 사제들은 장로나 감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사람은 종교 개혁가 마르틴 루

쳐(Martin Bucer/1491-1551)였다. 그는 또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에서 볼 때, 현재 개신교의 장로 직책은 사제 계급이 결코 아니다.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이 종교개혁이후 장로 직분을 평신도 사역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전문인으로 양성된 목회자들이 성서 시대의 사도나 선지자들 또는 준 사도들의 순회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면서 동시에 당회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장로들은 장로회를 구성하여 목회자를 도우며, 성도들의 믿음과 생활을 감독, 치리, 교육, 목양하는 일을 담당한다.

장로 직분의 자격은 집사 직분의 자격과 비슷하며, 장로나 집사 직분의 자격이나 임무는 또한 목회자의 임무이며 자격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개신교회에서의 장로나 집사의 안수는 사제가 아닌 평신도 지도자 또는 봉사자로서 임명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 3. 집사 직분에 관한 성서의 가르침

초대교회가 언제부터 집사 직분을 갖기 시작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직분으로서 사용된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성구는 단지 두 곳뿐이다. 바울이 집사라는 말을 최초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사용했으며, 이는 교회가 주후 30년에 세워진지 32년이 흐른 62년경이었다. 그 후 67년경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8-13에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는 부정사의 형태로 '공궤를 일삼다' 또는 '섬기다'의 뜻을 가진 동사가 사용이 되었고, 이 동사에서 유래된 명사가 바로 '중,' '중업원,' '시중원,' '섬기는 자' 등이며, 이 말이 또한 '집사,' '일꾼,' '사역자'를 의미하는데 사용되었다.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칠인의 사역이 집사 직분이었는지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와 유사한 일을 감당한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들 칠 인은 모두 헬

라파 유대인이며, 모두 남자들이었다.

역사상에 나타난 집사에 관한 기록이나 변천을 보면, 집사나 장로들의 직책은 평신도의 직책이 아닌 사제 계급으로 발전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천주교회, 영국 성공회, 감독교회, 미국 감리교회, 독일 개신교회들에서 집사는 사제 계급인 부제를 말한다. 부제의 임무는 사제를 돕는 성직이다. 사제가 없는 교회에서는 부제가 교회를 돌볼 수 있다. 최근 천주교에서는 부제직을 '봉사자'직으로 바꾸기 시작했으며, 원하면 결혼도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회들은 집사 직분을 평신도 직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집사의 직분을 가난한 자들을 돌보거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맡아 하며, 예배를 돕거나, 목사의 사역을 돕는 일에 한정시키고 있다. 현재 개신교회의 제도 하에서는 집사가 결코 부제가 아니다.

성서에 나타난 집사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칭찬을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행 6:3). 단정한 자, 일구이언하지 아니 하는 자, 술에 인 박이지 아니한 자,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 하는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자녀를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또한 직분에 임명될 자는 먼저 증명되어야 한다(딤후 3:8-13).



## 제2장 장로들, 장로직

번역과 해설: 조동호 목사. 출처: Peter M. Morgan, "Elders, Eldership," in the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개 교회에서의 감독 사역(목회)직은 스톤-캠벨운동에서 사도 행전과 바울서신들의 비교해석을 통해서 '감독'직과 하나이며 동일한 것으로써 역사적으로 이해하였다.

하나의 독특한 역사는 스톤-캠벨운동의 교회들에서 장로 사역(목회)을 다듬어왔다. 알렉산더 캠벨은 그가 택한 미국에서 개신교 교회들을 개혁하고 연합시키려 하였다. 극복해야 할 장애들 가운데 하나는 사제들의 지도력에 의존하는 사역(목회)체제였다. 그는 너무 쉽게 풍자될 수 있는 개인들을 양산하는 사제 체제를 자기본위의 파벌적 권위주의로 보았다. 그는 이 체제가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사역(목회)을 좌절시켰다고 믿었다. 캠벨의 개혁은 그것의 지도력을 포함해서 신약성서의 속독을 통해서 정의되었고, 방향과 에너지가 주어졌다. 그는 또한 스코틀랜드의 로버트와 제임스 할데인(Robert and James Haldane)으로부터 공중 예배(social worship)에 대해서 그리고 윌리엄 밸런타인(William Ballantine)으로부터 장로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알렉산더는, 그의 저서 『크리스천 시스템』(*Christian System*)의 사역(목회)에 관한 장(章)에서 언급한 대로, "감독들, 집사들, 전도자들로 구성된 ....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불변의 사역(목회)"을 회복하려고 힘썼다.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목회)은 왕의(만인) 제사장직과 신자들의 공동체에 맡겨졌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일을 행하거나 사역(목회)자의 지도력의 위치들에서 섬길 책임자가 되거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았다.

전도자들은 회중(교회)들을 직접적으로 섬기지는 않았지만, 초대교회에서처럼, 순회(목회)자들로서 복음 선포, 새 신자 양성, 교회 개척을 위해서 회중(교회)들에 의해서 파송되었다. 집사들은 장로들처럼 그들의 사역(목회)들을 주어진 회중(교회) 안에서 집중하였다. 그들은 회중(교회)의 부름을 받았고, 회중(교회)에게 책임을 졌다. 그들은 회계담당자들, 자선담당자들, 청지기들, 안내자들, 전달자들의 기능들을 맡았다.

장로들(presbyteroi)은 또한 신약성서에서 주교들 혹은 감독들(episkopoi)로 불렸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께 회계보고를 해야 할 자들로서, 회중(교회)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아 공동체를 이끌고, 가르치고, 덕을 쌓게 하고 - 지식과 이해로써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 그들의 영혼들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각 교회(회중)는 장로로서 섬길 성서적 표준들에 맞는 자격을 갖춘 지역 교인들을 갖거나 갖추도록 하였다. 가르침, 목양, 감독 그리고 인도의 결합된 은사들은 어느 개인의 자격들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회중(교회)들은 각 교회의 감독들의 그룹, 곧 '복수' 장로들에 의해서 인도될 필요가 있었다. 캠벨에 의하면, 이들 직책들은 안수를 받고 보상을 받도록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에 관해서 회중(교회)들은 캠벨의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정형적으로 느꼈다.

장로직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는 '항구적인' 사역(목회)에 대한 신약성서의 증거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했고, 장로들과 감독들이 동일한 신분임을 반복해서 설명한 제2세대인 로버트 밀리건(Robert Milligan)에 의해서 좀 더 명확해졌다. 밀리건은 장로와 전도자의 개별 직책들에 대한 어떤 혼동에 대해서도 경고하였다. 장로들은 원칙적으로 회중(교회)의 영적 관심들과 목양적 요구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직책에 대한 제한이다. 이것이 그들의 적절한 활동(노동) 영역이다. 그들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한 어떤 위임도 받은 것이 없다."

한편 캠벨의 견해들에 대한 초기 전용(轉用)은 새로운 쟁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다소간 재고와 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같은 쟁점의 하나가 지역 회중(교회)들 속에 '정착한' 설교자들의 직무상 목회자의 지위였다. 1840년대 무렵 일부 회중(교회)들은 젊은 대학 졸업자들을 초빙하기 시작하여 그들 공동체들 속에 정착하도록 하였다. 더 이른 시기에 발전된 장로직 형태와는 대조적으로 이들 개인들은 목회자적 임무 수행에 따른 보수를 지급토록 되었다. 1865년까지 켄터키 주 렉싱턴 시에 하나의 특화된 '성서대학'이 회중(교회)에게 목회자의 일을 하게 할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정착하여 보수를 받는 전문 사역(목회)의 등장은 스톤-캠벨운동의 사역(목회) '체제'(조직)에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해설: 1804년 발튼 스톤의 '스프링필드장로회유언서' 발표, 1809년 토마스 캠벨의 '선언과 제언' 발표이후 꾸준히 발전되어 온 스톤-캠벨운동은 1830년 알렉산더 캠벨이 침례교회를 탈퇴함과 동시에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를 접고, 『새천년 왕국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지를 새로 시작하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출범하였다. 『새천년 왕국의 선구자』지의 출범은 '그리스도의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의 교회' 시대 곧 기독교의 '새천년' 시대를 알리는 고귀한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야 비로소 '유급 목회' 혹은 '전문 목회'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전문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들이 필요로 되었던 것이다.]

새로운 전문 사역(목회)을 수용하기 위한 기존 사역(목회) 체제를 조정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개의 상방된 견해들이 동시에 발전했다. 논의가 1890년대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속되었다. J. W. 맥가비(McGarvey)와 L. B. 윌키즈(Wilkes)가 목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전도자였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섬겼던 '정착'(불박이) 전도자들이었다. 전문 목회자는 장

로들의 감시와 지배에 분명히 복종하였다.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J. H. 게리슨(Garrison)과 같은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지지된 반대의 견해는 목회자가 그 자신이 장로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목회자는 주도적인 장로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였다. 장로들은 조언을 하거나 주의 만찬 상을 섬기고 목양을 하곤 하였다. 목회자는 장로로서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을 수행하곤 하였다.

20세기는 스톤-캠벨운동을 세 개의 별다른 단체들로 나누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주로 J. W. 맥가비(McGarvey)의 입장을 따랐고 발전시켜왔다. 따라서 목회자는 각 교회 장로들에게 복종한다. 이들 회중(교회)들은 또한 장로들이 성경지식에 충분히 익숙해 있어서 통치하는 것에서와 마찬가지로 감시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 자격을 갖춘 자들이어야 할 만큼 높은 가치를 뒤왔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회중(교회)들은 이 두 가지 전통적인 모델들 가운데 한 가지를 채택하였고, 때로는 어느 모델이 더 바람직한가를 놓고 회중(교회) 내에서 긴장이 감돌기도 하였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20세기 후반에 소위 대형교회들(megachurches)의 발전과 더불어 장로직에서의 변화들을 보았다. 그 같은 사례들에서 목회자는 종종 법인의 CEO(대표자)의 것에 필적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 같은 대형 회중(교회)들에서 장로들은 조언과 동의를 구하기위해서 소집된다. 극단의 대립 상황들에서 장로들은 목사의 제안들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단지 소수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만이 각 회중(교회)들에서 여성들을 장로직에 안수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에서나 혹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도 여성장로안수가 눈에 떨 만큼 널리 퍼진 경향은 더욱 아니다.

수년간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은 기능성 위원회들(committees)과 임기가 정해진 위원회들(boards)의 도입으로 지배 직책으로써의 장로직의 권한을 대폭 제한하였다. 장로들은 비공식 목자들로서 대체로 존경을 받았던 '명예로운' 인물들이 되었고, 그들이 주의 만찬 상에서 목사들과 함께 사역(목회)을 공유할 때 그들의 초상(icon)적 외모에 대한 가치를 높였다. 역사가 로널드 오스본(Ronald Osborn)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장로들의 '신비적 분위기'를 설명하였는데, 이것은 교회 사역(목회)과는 매우 다른 직업들을 가지고 삶을 영위한 사람들이 주의 만찬 상에서 드리는 기도들의 신령한 증언과 주의 만찬 때 그들이 하는 봉사에서 특별히 기인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은 20세기 후반에 일부 회중(교회)들에서 장로들의 새로운 활력을 보아왔다. 여성들은 진지한 논의 후에 장로들로서 섬기기 시작하였고, 종종 수년이 걸렸다. 그들의 지식, 종종 그들의 선교 열정, 그들의 깊은 영성, 또 그들의 사명감은 장로직 사역(목회)의 갱신에 공헌하였다. 또한 제자들 신학대학원 재단(Disciples Seminary Foundation)과 국내선교국(Division of Homeland Ministries)은 회중(교회) 통치에서 교사들로서, 목자들로서 또 '지혜자들'(wisdom figures)로서 장로들의 권리 재 신장에 지대한 일을 하였다.

종종 그 전통 밖의 교회들에서 이례적인 것으로 인지된 스톤-캠벨 장로직은 살아남았고, 종종 성공하였으며, 알렉산더 캠벨에 의해서 추천된 목회(자의) 체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명시적 융통성을 갖는다.

## 【참고서적】

Boles, H. Leo. *The Eldership of the Churches of Christ*(n.d.).  
Campbell, Alexander. *The Christian System*(1839).

- Deveny, Albert Lewis. *The Church and Its Elders: A Study in Spiritual Mechanics*(1941).
- McGarvey, J. W. *A Treatise on the Eldership: A Series of Editorial Articles Originally Published in the "Apostolic Times"*(1870).
- Milligan, Robert. "The Permanent Christian Ministry," no. 2:"Of Elders," *Millennial Harbinger*(1855): 685-93.
- Morgan, Peter M. *Disciples Eldership: A Quest for Identity and Ministry*(1986).
- Osborn, Ronald E. "The Eldership Among Disciples of Christ," *Mid-Stream* 6(1967): 74-112.
- Walker, W. R. *A Functioning Eldership*(1942).
- Williams, D. Newell. *Ministry Among Disciples: Past, Present, and Future*(1985).
- Yeakley, Jr., Flavil R. *Church Leadership and Organization: A Doctrinal and Practical Study of the Leadership Role of Elders*(1986).

## 제3장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집사 선출

아래에 소개한 장로 집사 선출과정은 미국 인디애나주에 소재한 대예배 출석인원 1,200명 규모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회중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통일된 장로 집사 선출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소개된 선출과정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장로 집사 선출은 12월 첫 주일날 교인들의 선거로 이루어진다.

2. 추천은 10월 첫 주경에 시작된다. 누구나 장로나 집사의 후보자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추천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 성인주일학교 각 반에서는 장로 집사의 자격이나 그들 기능의 중요성에 관해서 일련의 수업을 시행한다.

3. 추천은 장로들 아무나 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추천서 양식은 추천자가 장로직이나 집사직에 관한 적절한 성구를 읽었고, 피추천인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기술한다. 추천자들은 추천을 하기 이전에 추천 가능한 피추천인과 접촉하도록 지시받는다. 현직 장로들과 집사들도 그 해로 임기(보통 1-3년)가 끝나거나 휴직기간 중에는 휴직기간이 끝나는 해에 다음 해에 다시 장로와 집사로 섬기기 위해서는 동일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 추천서를 받은 후, 장로들은 피추천인들을 각 장로들에게 분담시켜 피추천인과 직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여 그가 추천된 직에 출마하기를 원하는지를 확인한다. 만일 피추천인 가운데

성경말씀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면, 이 문제는 이 회의 때에 의논된다.

5. 장로들이 피추천인들과의 인터뷰를 다 마치면, 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한다. 작성된 명단을 게시판에 부착하고, 선거가 있는 날까지 매주일 회보(주보)에 실는다. 만일 후보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있다고 장로들에 의해서 판단되고, 그 후보자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치 않을 때, 그를 피추천인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 회중은 성경말씀에 따라 투표할 책임을 갖고 있고, 그 (부적격한) 사람은 선출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회중이 선거과정에서 성경적인 지혜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부적격자가 선출될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 선출제도는 연령이 많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장로직에 선출되어 봉사한 원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어떤 교회에서는 후보자가 자기 이름이 명단에 오르기 전에 먼저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의사를 선포해야한다. 또 다른 교회들에서는 장로나 집사로 봉사할 수 있는 특정 기한(보통 1-3년)을 두어 독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누구나 일정 기간을 봉사한 다음에는 재선출되어 봉사할 때까지 정한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예를 들면, 어떤 이가 3년 임기의 장로직에 선출되어 임기를 마쳤다면, 재선출되어 봉사할 때까지 일 년 또는 이년 동안 장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유능한 자원자가 임기만료 때문에 계속해서 봉사할 수 없도록 하는 폐단을 갖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소개한 교회의 경우 휴직기간 없이 해마다 모든 장로들과 집사들을 새로 뽑는다. 매년 출마하여 매년 선출된다면 평생을 장로나 집사로 섬길 수 있게 된다.

## 제4장 개신교 목사직에 대한 소고

개신교의 목사직만큼 근거규명이 어려운 것도 없다. 신약성서가 감독직, 장로직, 집사직에 관해서 명시(明示)하고 있는 반면, 목사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사직을 불박이 감독직과 장로직에 연결시키기도 하고, 떠돌이 전도자직에 연결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첫째, 만일 목사직이 감독직 또는 장로직과 동일한 것이었다면, 즉 감독과 장로가 목사였다면, 목사는 장로들과 마찬가지로 회중에 소속된 회원, 즉 회중 안의 불박이였을 것이고, 회중 밖에서 초빙되지 않았을 것이다. 목사는 한 회중의 다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목양권, 감독권, 치리권을 모두 누렸을 것이다. 이 형태가 1-2세기경의 초기교회들의 모습이었다.

둘째, 만일 목사직이 전도자직과 동일한 것이었다면, 즉 전도자가 목사였다면, 목사는 한 회중의 장로들의 감독권 아래서 그들로부터 안수(임명)를 받고 파송되어 다른 지역에서 회중을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을 베푸는 교회 개척자였을 것이며, 새로 세워진 교회들의 임명된 장로들에게 목양권과 감독권과 치리권을 넘긴 후에 다른 회중을 세우기 위해서 이동해야하는 순회 목회자였을 것이다. 순회 목회자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다수 있었다. 이 형태 역시 1-2세기경의 초기교회들의 모습이다.

셋째, 개신교가 탄생한 16세기경까지는, 2세기경에 순회목회자들이 교회들에서 사라졌고, 지역교회의 불박이 목회자들이었던 감독들과 장로들이 목양권과 감독권과 치리권을 담당하였으며, 4세기 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후부터는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이 사제계급으로 발전하였고, 주교좌교회들을 중심

으로 한 교권화와 중앙집권화가 이뤄진 이후부터는 사제들이 교권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형태는 불박이 지역 사제들(장로들)이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순회 사제들로 바뀐 가톨릭교회와 비슷하다. 그들은 결혼하지 아니한 사도 바울(고전 7:8)처럼, 한 아내의 남편이 되기를 포기하였다.

넷째, 종교개혁이후 개신교회들은 개신교 사제들(장로들)의 지도 아래 있었다. 종교 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1491-1551)가 '장로사제'를 '목사'로, '미사(제사예배)'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주의 만찬상'으로 바꿔놓았지만, 아직 오늘날과 같은 전문직 목사의 등장할 시기는 아니었다.

다섯째, 17-19세기를 거치면서 개신교회들은 신앙고백(신조)주의, 경건주의, 대각성운동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양한 형태로 갈라졌다. 따라서 목사직에 대한 견해와 입장은 교단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여섯째, 19세기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목사직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이 등장하였다. 첫째, 목사는 전도자인가, 혹은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인가? 둘째, 전도자 또는 목사(minister)를 회중 밖에서 초빙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셋째, 목회전담자에게 사례비를 주는 것이 성서적인가? 넷째, 전담 목회자의 안수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소속 회중의 장로들에게 있는가, 지방회나 총회에 있는가? 다섯째, 장로의 교회치리권이 목사에게도 있는가? 여섯째, 여성의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성서적인가?

근본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회중 밖에서 초빙되는 목사를 비성서적으로 보았다. 부득이 초빙된 경우에는 초빙한 회중의 장로들의 감독권 아래 놓였다. 따라서 목사에게는 치리권이 없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요,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침례를 베풀 수 있고,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 안수권은 개 교회의 장로들에게 있지만, 피안수자가 장로들의 감독권 아래 놓이는 임명식 말고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따라서 목사는 장로가 아니며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

는 만인제사장의 일을 풀타임 전담하는 목회자이다. 감독과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연소한 자는 안 된다. 하지만, 목사는 젊어도 상관없다. 목사의 호칭으로는 '전도자'(evangelist)를 선호한다.

복음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회중 밖에서 초빙되는 목사를 시대적 요청으로 받아드리며, 보통 초빙된 회중의 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만인제사장의 일을 풀타임 전담하는 목회자이다. 감독과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연소한 자는 안 된다. 하지만, 목사는 젊어도 상관없다. 목사의 호칭으로는 '섬기는 자'(minister)를 선호한다.

진보주의 노선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 회중 안에서 임명되는 감독과 장로와는 달리 목사는 회중 밖에서 부름을 받고 목회기능들을 전임하는 새로운 직책, 곧 섬기는 자(minister)의 직책을 가진 자로 보았다. 따라서 목사의 직책은 한 회중의 직책이 아니며, 캠벨이 말한 장로나 전도자가 아니라고 본다. 목사는 순회목회자이기 때문에 한 회중에 속하지 않고 전체 교회(the whole church, 총회)에 속한다. 그러므로 목사안수는 한 회중의 장로권아래 있지 않고, 지역(지방회)의 승인권과 지도권아래 있다고 본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목사는 만인제사장의 일을 풀타임 전담하는 목회자이다. 목사의 호칭으로는 '섬기는 자'(minister)와 '목사'(pastor)를 겸용한다.

오늘날에는 모든 교회들에서 초빙 목사와 사례비지급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성서적 문제를 떠나서 시대적 요청이요 관행이기 때문이다. 다만 목사들이 장로들의 감독권 아래 있는지, 혹은 지방회나 총회의 감독권 아래 있는지만 다를 뿐이다. 목사직책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언급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와 5장 17절에 언급된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한 회중 안에서 임명되는 불박이 감독들과 장로들에 관한

말씀이 되고, 1840년대 이후 회중 밖에서 초빙되기 시작한 전도자들 또는 목사들(섬기는 자들)에 관한 말씀은 아닌 게 된다. 따라서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가와 교회에서의 여성 리더십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도 회중 밖에서 초빙된 목사들이 회중 안 불박이 감독들과 장로들에게 요구된 한 아내의 남편들이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해답을 찾고 있다. 순회(떠돌이) 목회자들(사도, 선지자, 전도자, 교사)은 바울처럼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다수였다.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상반절)는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무질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라에 실린 613개의 계명에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계명이 없다는 유대교인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하반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거론한 것이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 것을 보아 추론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의 표준관행은 회중의 회원들이 신임 목사, 신임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그들을 안수하는 것은 장로들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설교 목사들이 초빙하는 회중에 의해서 항상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모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회중들이 다시 안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공식적인 목회계급(order)을 결단코 인정할 일이 없으며, 오히려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온몸을 던져 거부해왔다.

스톤-캠벨운동의 특징은 만인제사장설에 있다. 회중 내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회중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의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회들, 곧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다. 목사의 임무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것”(행 6:4)이다. 물론 목사가



감독이요 장로라는 입장에서는 회중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권이 목사에게도 주어지지만, 감독이나 장로가 더 이상 사제나 성직자(clergy)가 아닌데도, 여전히 회중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비성서적인가라는 물음에 답을 찾고 있다.

목사가 장로들의 감시와 지배아래 있는 고용 전도자이든, 그 자신이 주도적인 장로이든, 19세기 후반이후 목사는 유급 고용 목회자이고, 풀타임 전담 목회자이며, 전문 목회자이다. 게다가 미국의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목사의 호칭이 '섬기는 자'(minister)란 말로 자리를 잡았고, 캠벨의 사위로서, 베다니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펜들톤과 진보신학에 맞서 싸운 보수신학의 보류였던 맥가비와 같은 석학들이 목사장립의 의미를 임직으로 보았으며, 안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기독교에는 제단도 없고, 예배가 제사도 아니다. 따라서 목사는 더 이상 사제(제사장)가 아니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행 6:4) 전문 일꾼들이다. 목사가 하는 기능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장벽을 허무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제(제사장)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대제사장이 일 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법궤)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 보충 내용

1. 신약성서에는 여성 목사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여성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분명한 언급도 없다. 역사적으로 목사의 일을 수행해왔던 회중 내의 감독/장로들에게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지만, 회중 밖에서 훈련된 개신교 목사들은 섬기는 회중의 감독/장로들 가운데 한 사람 또는

주도적인 감독/장로일지라도, 그 성격이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어도 허락되었던 순회목회자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여성 목사는 여성 감독/장로가 없었던 당대의 제도상의 문제에서 비껴난다. 또 여성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분명한 언급도 없다는 점에서 여성리더십을 부정했던 과거의 제도가 절대적일 수 없다.

2. 여성 목사가 있었다는 언급도 없고, 여성은 목사가 되지 말라는 지시도 없는 신약성서의 침묵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근본주의 노선을 취한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금지로 보았고, 복음주의 노선을 취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과 진보노선을 취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유로 보았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은 '본질에 일치, 비본질(침묵하는 것)에 자유, 모든 것에 사랑'이란 선교방법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비본질(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금지로 해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과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3. 여기서 여성목사 안수가 과연 본질의 문제냐, 혹은 비본질의 문제냐를 결정해야한다는 점과 이 결정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몫이란 지적에 대해서 100퍼센트 찬성한다. 다만 근본주의를 제외하고는 여성 목사를 본질의 문제로 생각지 않는다는 점과 구원의 문제와도 관계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그래서 구원론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큰 정신은 남녀노소불문하고 만인이 동일한 하나님의 일군이란 데 있다. 목사란 그저 판사나 변호사 혹은 의사처럼 전문직 일군일 뿐이다. 스톤-캠벨운동권에서 안수문제를 전통적으로 가볍게 취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에서는 목사안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목회하고 있을 때에 국한되고, 목회를 잠시 쉬든지, 접은 경우에는 보통 집사나 장로에 출마하여 회중을 섬긴다.

4. 그러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백석대학교의 최갑중 교수의 해석을 들어보자. 최교수는 2005년 5월 27일 논문발표 및 토론회에서 '초기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과 위치'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고린도전서 14

장 33~35절 말씀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특수상황, 즉 “당시 고린도교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여성도들, 특히 가정을 가진 여자들이 교회에서 일으킨 분쟁과 공적 예배시의 무질서를 경계하고 예방하기 위함이다... ‘여성도 전체’에게 속한 보편적인 명령이 아니라, 교회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기혼여성 몇몇에게 내리는 ‘특수한 명령’이기에 본 구절을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는 결정적인 근거 구절로 드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일절 여자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35절)는 내용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 자유를 얻은 여자들이 이 자유를 남자들을 주관하고 가르치는 데 쓰려했던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다... 기혼여성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시 ‘창녀’로 간주될 수 있었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규범에 비취볼 때, 교회의 여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남자에게 무엇인가를 물을 때 교회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비취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유의 사용을 일부 제한한 것이다... 그 당시 바울 당대의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남자들보다 교육을 받지 못한 탓으로 남자들보다 이해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고 부언했다.<sup>1)</sup>

5. 바울이 반율법주의자란 인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오해를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취한 부정적인 시각의 대부분은 토라의 613개의 미츠보트(계명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계자이라(율타리)법들이었다. 당대의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계자이라법들이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벌린 논쟁들은 계명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자이라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조동호,

1) <http://crossmap.christiantoday.co.kr>

『유대교와 기독교』 참고). 바울의 여성에 대한 편견은 그것이 부분적으로 계명에 관련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자신이 바리새인이었던 유대교적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6. 목사가 장로의 한 사람으로서 감독권, 목양권, 치리권이 있다는 입장이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입장이다. 목사가 단지 기도하고 말씀만 선포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감독권, 목양권, 치리권을 갖고 있다고 보아진 회중 내에서의 장로들과는 다른 별도의 보직, 그것이 성서적이든 아니든 회중 밖에서 훈련된 전문직 목회자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사는 장로가 아니며, 치리권이 없다. 이런 모든 고려들을 떠나서 현대목회에서는 사이즈가 커질수록 미국의 스톤-캠벨 운동권 내의 목사는 한 회중의 CEO의 성격을 띠어가고 있고, 장로들의 회중에 대한 치리권은 1984년 법정사건이후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로들의 임기가 많은 교회들에서 1년에 지나지 않으며, 매년 새로 선출된다는 점이다.

7. 목사가 사제직이나 아니냐의 문제와 여성 목사의 문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제에서 볼 사항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여성에게 제사장을 계명으로 주신바가 없다는 점에서조차 차별로 인식하지 않는다. 목사가 사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목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여성 목사의 허용이 본질의 문제에서 비껴간다는 점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 제5장 목회

번역 및 각주: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출처: D. Newell Williams, Paul M. Blowers, and Douglas A. Foster,<sup>1)</sup>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 차례

1. 목회에 대한 19세기 견해들
  - 1.1 스톤의 견해
  - 1.2 캠벨의 견해
  - 1.3 '목회자' 체제
  - 1.4 서기들, 감독들, 주(州) 전도자들
2. 20세기 발전들
  -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 2.1.1 안수 권한
    - 2.1.2 안수목회자들과 면허목회자들
    - 2.1.3 지역과 총회 직책들
    - 2.1.4 목회자의 신분유지
    - 2.1.5 장로들과 집사들
    - 2.1.6 여성 목회자들
  - 2.2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 2.2.1 장로들과 집사들
    - 2.2.2 전도자들 혹은 설교가들
    - 2.2.3 여성 지도자들

---

1) [역자 주] D. Newell Williams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소속 Brite Divinity School의 교수, Paul M. Blowers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소속 Emmanuel School of Religion의 교수, Douglas A. Foster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Abilene Christian University의 교수임.

## 2.3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 /Churches of Christ)

### 3. 결론

스톤-캠벨운동에서 목회는 가르침, 섬김, 교회의 감독 혹은 돌봄의 지도력으로 이해되어져왔다. 비록 스톤과 캠벨이 전수한 목회관(牧會觀)들에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둘 다 개혁주의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 스톤-캠벨운동의 세 지류들에서 발전된 목회에 대한 상이(相異)한 이해들과 실천들은 모두 개혁주의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 1. 목회에 대한 19세기 견해들

### 1.1 스톤의 견해

발톤 스톤의 배경은 장로교였다. 장로교전통을 유지하면서 그는 ‘목회’직은 ‘감독들, 장로들, 목사들, 전도자들’로 밝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가르쳤다. 이 직책의 일은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며, 침례와 주의 만찬의 의식들을 집행하고, 교회 징계(회중에 대한 도덕적 감독)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로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스톤에게는 ‘감독,’ ‘장로,’ ‘목사’란 말들이 설립된 회중들(교회들)을 섬기는 불박이 목회자들을 말한다. 그러나 ‘전도자’란 말은 떠돌이 목회자들을 말하며, 그들의 특별 사역이 새로운 회중들(교회들)을 조직하는 것이었다. 장로교 관행을 유지하면서 스톤은 회중들(교회들)은 보통 한 명의 감독, 장로 혹은 목사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고 가르쳤다.

스톤은 장로교 정치조직의 두 번째 직(職), 곧 ‘치리 장로’(ruling elder)의 직책과 관련해서 장로교와 입장을 달리했다. 장로교 정치조직에 의하면, 치리 장로는 ‘신자들의 대표자’이며, 목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통치(행정)와 징계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하거나 가르치지 않으며, 침례와 주의 만찬을 집행하지 않는다. 스톤은 자신의 목회기간 내내 가르치지 않는

장로를 성경이 공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과 관련해서 목회에 관한 스톤의 견해는 장로 교인들의 것보다 더 성직(聖職)적이었다. 장로교회들이 목사와 함께 회중통치에 참여할 '신자들의 대표자'로 임명된 직책을 허락한 반면, 스톤은 목사 혼자서 교회를 통치하도록 허락하곤 하였다. 말년으로 갈수록 스톤은 교회에서의 도덕적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졌으며, 치리 장로직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뒤집었다. 스톤은 몇몇 나이 많은 장로들이, 비록 그들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성례전을 집행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교회의 치리자들이 되어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스톤의 추종자들은 치리 장로들과 목사들은 물론 집사들도 두고 있었다. 스톤은 집사들의 사역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교회의 속세 업무들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장로교의 이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스톤은 교회 직책들의 안수권이 목사직에 있다고 가르쳤다. 장로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스톤은 회중들이 그들 자신의 직원들을 뽑도록 되어있었지만, 안수는 장로들이나 목사들의 일이라고 믿었다. 스톤에게 있어서 목사의 권위는 목사들의 징계를 위한 적절한 절차들에 대한 그의 견해 속에 더 반영되었다. 비록 목사가 무질서한 행동에 대해서 회중에 의해서 심리 받을 수 있을지라도, 목사는 '거짓교리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는 목사들의 협의회에 의해서만 심리 받을 수 있다.

스톤과 그의 동료들이 장로교주의의 거부를 선언한 문서인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는 목사직과 안수에 대한 장로교의 이해를 비난한 것으로써 종종 읽혀져 왔다. 목회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다룬 『유언서』의 네 가지 조항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스톤과 그의 추종자들이 장로교의 목회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회에 대한 스톤의 견해는, 성서적 보장도 없고, 그리스도인의 일치에 서 있지 않다고 그가 믿었던 장로교의 사법적 실행의 제 측면들을 빼고는 장로교주의와 거의 다르지 않았다. 스톤의 교회들의 목사들 혹은 장

로들은 복음을 선포하고, 의식들을 베풀며, 회중을 치리하기 위해서 안수를 받았다. 그들만이 거짓교리를 가르친 동료 목사를 징계할 권한과 다른 사람들을 교회의 직책들에 안수할 권한을 가졌다.

## 1.2 캠벨의 견해

목회에 관한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들은 스톤과 캠벨의 세력들이 연합한 후에 스톤의 견해들을 능가하였다. 스톤과 마찬가지로 캠벨의 배경은 장로교였다. 그러나 목회에 관한 그의 견해들은 또한 스코틀랜드 침례교들과 독립교회들의 견해에 영향을 받았다. 1820년대 내내 캠벨은 그가 1823년에 창간한 월간지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지(誌)에 실은 글들을 통해서 ‘성직자’(clergy)에 대항하는 전쟁을 치렀다. 캠벨에게 있어서 ‘성직자’란 말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보다는 자기사랑으로 목회한 사람들을 말한다. 그러나 성직자에 대한 캠벨의 반대는 개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스코틀랜드 침례교회들과 독립교회들처럼 전체 성직체제에 반대하였다.

캠벨에 따르면 두 가지 지주(支柱)들이 성직체제를 지지하였다. 이들 두 가지 지주들 가운데 첫 번째는 “흔히 목회 사역이라 불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성직자가 그들의 직무들과 인물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목회에서의 소명의 개념을 악용하였다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성직체제의 두 번째 지주는 더 나은 교회행정을 위해서 “소명 받은 자들의 제후의 필요성”이었다. 캠벨은 그 같은 협의회들, 소위원회들, 장로회들, 협의회들 혹은 회담들이라 불리는 것들의 진짜 목적이 교회 복지를 진작시키려는 데 있지 않고, 성직자의 권위와 사례비들을 방어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직체제의 결과는 성직계급을 확립한 것이었다. 성직계급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방해하는 기능을 하였다. 캠벨은 회중(교회)들이 그들을 섬길 성직자를 갖지 못하였



을 때, 그들이 모임을 갖지 못한 것을 서글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캠벨의 반대는 그가 정당하게 승인된 교회의 목회라고 이해한 것에까지 한 번도 확대되지 않았다. 실제로 『크리스천 뱍티스트』지가 처음 발행된 제1호에서 굵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은 경고를 실었다. “우리가 밝힌 ‘크리스천 성직자’에 관한 소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집회의 장로들 혹은 집사들, 혹은 신약성경에서 감독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봉사자들로 불린 자들을 결코 포함시키지 않는다.” 『크리스천 뱍티스트』지의 이어진 발행들과 이후의 출판물들에서 캠벨은 신성하게 제정된 목회 질서라고 그가 이해한 것의 자격들과 의무들을 개괄하였다.

“기독교 공동체의 확고하고 불변한 목회”는 감독들과 집사들과 전도자들로 구성되었다. 감독자들(overseers)을 의미하고, 장로들 혹은 목사들과 동일한 감독들(bishops)은 회중(교회)들의 최고 임원들이었다. 감독의 의무들은 가르치고, 교회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고, 회중의 구성원들을 목양하며, 징계문제들(회중의 도덕적 감독)에서 통치하는 것이었다. 캠벨은 감독의 독특한 의무들에 관한 그의 설명에서 ‘설교하다’란 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캠벨에게 있어서, 설교는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다. 성구를 해석하거나 기독교 믿음(종종 ‘설교’라 불리는 것)을 해설하는 것은 감독의 가르치는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캠벨은 이해하였다. 주의 만찬의 집례는 회중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는’ 것에 포함되어졌다. 캠벨은 장로들과 감독들의 임무에 중대함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직책을 풀타임으로 섬겨야 하며, 그들의 봉사에 대한 보수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감독들 혹은 장로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직자들과 다르다. 첫째, 감독들은 그들이 회원들이었던 회중들로부터 목사직에 선출되었다. 대조적으로 성직자들은 목회지를 얻기(trade) 위해서 준비하였고, 그들을 채용해줄 회중을 찾아나섰다. 둘째, 감독들은 그들을 뽑은 교회의 임원들일 뿐이었고, 다른 교회들의 임원

들은 아니었다. 감독들은 그들을 안수한 회중을 떠나 다른 회중에로 옮길 때 그들의 감독직이 정지된다. 어떠한 감독도 한 번에 한 회중보다 더 많은 회중들의 목사일 수 없다. 대조적으로 성직자는 평생직으로 안수를 받으며, 종종 다수의 회중들을 동시에 섬겼다.

감독직에 대한 자격들은 임무에 의해서 요구된 것들이었다. 때문에 감독으로 뽑힌 사람은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고, 건전한 가르침으로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확신시키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한다.” 감독은 또한 예배와 징계 기능 모두에서 “잘 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캠벨은 이들 자격들이 젊은 사람과 나이에 상관없이 새 신자에게서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믿었다. 성직 체제의 젊은 목회후보자들을 분명히 염두에 둔 채, 캠벨은 “장로티를 내는 풋내기나 2-30대의 젊은이를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없다. 그리고 만약 그 호칭이 그의 연령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감독직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도 좋을 매우 분명한 이유이다.”고 썼다.

1826년까지 캠벨은 모든 회중에 다수의 장로들(‘장로회’로 불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회(관장)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캠벨은 “더 뛰어난 은사들”을 가진 한 명의 장로가 “장로회의 회장”으로 뽑혀야한다고 권고하였다. 만약 회중 가운데 단 한 명의 장로가 전임으로 섬긴다면, 그 장로는 장로회의 회장으로 섬겨야 한다.

집사들은 교회의 봉사자들이었다. 캠벨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들의 임무가 “가난한 성도들과 과부들의 식탁을 공궤(供饋)”하는 것임을 인정하였다. 서신서들에 설명된 이 직책의 자격들을 지적하면서 캠벨은 그들의 의무들이 이 임무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모든 대내외 관련 업무들에서 공적인 봉사자들로서” 간주되었다. 캠벨은 집사들이 주의 만찬 식탁, 감독의 식탁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식탁을 돌보는 데 헌신한 것이 초대 교회의 관습이었다는 점을 주목하면

서 인정하였다. 집사의 임무들이 종종 한 사람 개인에게는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었고,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것을 포함했기 때문에 캠벨은 모든 회중에서 다수의 집사들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권장할만하다고 믿었다.

회중의 임원들이었던 감독들과 집사들과는 대조적으로 전도자들은 회중이나 회중들의 단체에 의해서 파송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회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회중들을 조직하고, 훈련(징계)을 관장하며, 그들이 장로들을 뽑고, 전도자의 감독 없이도 기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전도자들은 그들을 파송한 교회와 교회들로부터 보수도 받지만, 감독도 받아야 했다.

전도자 직책의 자격들에 대해서 캠벨은 “우리 자신의 시대와 나라에 복음을 재 선포하기 위해서 회중들에 의해서 뽑혀야 할 자들에 대한 가장 훌륭한하고 모범적인 모델로서 교회는 사도들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추측컨대 캠벨이 전도자에 대한 지시로서 디모테전서 4장 12절(“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여신여기지 못하게 하라”)을 읽었기 때문에 또 전도자가 교회로부터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감독아래서 일하였기 때문에, 캠벨은 감독선출에 대한 입장과는 달리 젊은이가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하였다.

캠벨은 후보자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하도록 회중의 엄격한 선출과 회중에 의해 뽑힌 사람들의 안수를 받아 교회의 직책들에 앉게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성서가 규정한 목회의 직책들의 자격들에 의하면, 안수권위는 장로들이나 감독들에게 있지 않고, 회중에게 있었다.

캠벨은 만인제사장설의 주창자로서 잘 알려졌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회와 능력이 닿는 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상황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로써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며, 주의 만찬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감독직에 오를 자격자가 아무

도 없는 회중들 속에서는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임시로 선출되어 어린 양떼의 공중예배와 덕 세움과 훈련(징계)을 관장해야 했다”고 제시하였다. 캠벨은 주의 만찬의 매주시행의 의무를 논하면서 감독의 자격들에 적절한 회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두 명의 선임회원들”을 뽑아서 그들의 모임들에서 사회를 보고 주의 만찬을 베풀게 했던 한 회중의 예배를 추천하였다.

목회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침례교회들의 것과 닮았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침례교단에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에 관한 캠벨의 견해들은 두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침례 교인들의 것과 달랐다. 첫째, 캠벨은 감독은 “교회의 고정 회장”(the standing president)이며, 교회의 모든 모임들에서 사회를 맡아야한다는 침례 교인들에 반박하였다. 쟁점은 ‘의장’(moderator)을 선출함으로써 교회업무모임들을 시작하는 침례교의 관행이었다. 만약 감독이 참석하고 있다면, 의장으로 섬길 다른 누군가를 뽑아야할 필요가 없다고 캠벨은 주장하였다. 이 점에 관해서 캠벨의 견해들은 장로교회의 것들에 근접하였다. 장로교회들에서는 목사가 회의(목사나 감독 혹은 시무장로들로 구성된 회중의 시무 조직)의 의장으로 섬긴다. 둘째, 캠벨은 전체 회중모임에서 교회징계의 건들을 다루는 침례교회들의 관행에 반대하였다. 침례교의 전체 회중모임에서는 모든 회원의 판단이 동등한 무게로 다루어졌다. 캠벨에 의하면, 회중(교회)의 장로회는 모든 징계의 건들에서 ‘재판소’(tribunal)의 기능을 하는 것이었다. 개 교회(local) 장로의 직을 뛰어넘는 유일한 항소 법정인 전체 회중의 모임이 아니라, 이웃 교회들의 목사들로 구성된 상호 합의된 위원회이다. 이 점에 관해서 캠벨의 관행은 또한 장로교회들의 것에 근접하였다. 장로교회들은 회의를 통해서 징계의 건들을 해결하였으며, 회의를 통해서 지방 장로들의 조직, 곧 장로회에 항소해야지, 회중(교회)에 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 1.3 '목회자' 체제

목회의 직책들에 대한 캠벨의 이해는, 스톤-캠벨운동에 끼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회중들에서 목사직에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장로들이 선출되고 안수되었지만, 그들은 종종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행한 노력들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르치는 목회(teaching ministry)에 대한 갈망에 응답해서 회중들은 그들 가운데 상주하면서 목회 기능들을 전담할 전도자들을 1840년대에 초빙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젊은 대학졸업생들이 초빙되기도 하였다.

회중 밖에서 '상주(常住) 설교가'(resident preacher)를 초빙하는 것은 캠벨의 견해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캠벨의 견해는 회중의 리더십은 회중의 멤버십 내에서 선출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남북전쟁이후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지도자들이 된 스톤-캠벨운동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물음들을 제기하였다. 톨버트 팬닝(Tolbert Fanning)은 이 진전이 그 중요한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의 전도자의 직책을 빼앗을 것이고, 고용 목사가 그 구성원 자신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경향을 갖기 때문에 회중 내의 재능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팬닝의 제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급여를 주는 목사들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회중 밖에서 초빙하는 것만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로직은 그것이 받아야 마땅한 만큼 영광을 받지도, 존경을 받지도,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폐해는 순회 목사들로 장로들을 밀어내는 것으로는 결단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썼다.

새 진전을 받아드렸던 그 운동의 보다 더 큰 부류에게는 (적들의 비판대로) "한 사람 체제"가 캠벨 체제에 대한 진전은 아니고, 교회들의 특성에 의해서 필요가 생긴 실천적 한계였다.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는 다음과 같은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였다.

많은 교회들의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설교자와 교사와 치리에 있어서 장로들과의 협력자로 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필요한 일로써 타당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으로써 받아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성경이 의도하는, 이를테면, 그들의 업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리하는 것일 다수 장로들 혹은 감독들 - 교회의 유익을 가장 잘 유지할 그들의 수고를 쪼개는 것과 같은 힘의 조직을 좀 더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목적과 야망이 되어야하며, 그들의 봉사들에 보수를 줘야 한다. . . 세상일들에 빠져 있고, 교회들을 감독할 수 있지만, 이따금씩 할 수 있는 장로들은 신약성서에 기술된 장로들이 아니다.

한 회중이 회중 밖에서 상주할 설교자를 초빙하는 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이 그 새로운 관행이 만든 유일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새로운 체제를 수용했던 자들에게는 다른 문제들도 불쑥 나타났다. 무엇이 목회이며, 이 보직을 채운 사람의 직책이었는가? 그 같은 사람을 장로로 보아야했는가, 혹은 전도자로 보아야했는가? 그 보직을 가진 사람의 나이가 쟁점의 대상이 되었는가? 제자들은 이 쟁점을 19세기 후반기 삼분의 일 동안 토론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젊은 사람을 전도자로 봐야하며, 장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존 W. 맥가비(John W. McGarvey)였다. 맥가비는 스톤-캠벨운동의 초기 신학교인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성경 대학(The College of the Bible)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맥가비에게 전도자의 일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감독의 일과 동일한 것이었다. 전도자들과 감독들 모두에게 공통의 일이었던 설교와 가르침에 더해서 감독들은 교회를 치리(교회에서 징계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도자들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교회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권위아래 있었다. 맥가비는 성경이 젊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만, 장로는 완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

을 요구한다면서 장로와 전도자의 직책들 사이의 구별을 설명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장로로 간주돼야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의 편집자인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이었다. 1867년 그는 “그들 한가운데서 한 교회로부터 설교자와 교사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한 사람으로 확실히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젊은 사람은 나이 한 가지 때문에 장로직에 부적합하다는 반대에 대한 응답에서 에레트는 ‘장로’라는 말이 한 때는 ‘나이든 사람’을 의미했지만, 직무에 사용되어왔고, 지금은 단지 가르치고 징계를 관장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칭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레트는 일부 젊은 설교자들이 당분간 장로들의 지도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장로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자마자 장로직에 안수되어야 했다. 에레트에게 그 같은 사람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은 ‘목사’(pastor, 장로)였다. 비록 에레트가 회중의 설교자를 ‘목사’(pastor, 장로)로 종종 언급하였지만, 그는 이 호칭을 장로들과 다른 별개의 직책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목사’(pastor, 장로)는 목회사역에 전무(專務)하는 장로였다. 다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립스콧과 맥가비에 대조적으로 에레트는 만약 ‘목사’(pastor, 장로)가 목회의 직책을 갖기 위한 자격을 갖춘 회중의 유일한 구성원이었다면, 성경은 교회가 그 한 사람 목사(pastor, 장로)에 의해서만 치리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스톤-캠벨운동의 교회들은 회중 내의 목회 책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회중 밖에서 초빙된 사람이 전도자였는지 혹은 장로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코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보직을 취한 사람을 ‘설교자’(preacher) 혹은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로 언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맥가비는 ‘목회자’(minister)란 말을 좋아하였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종(servant)이었고, 치리자(ruler)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맥가비 견해는 그 운동 속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이 주의 만찬의 집례를 회중의 회원권 내에서 뽑힌 장로들이 담당하는 20세기에까지 이르렀다.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는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주의 만찬의 집례, 곧 역사적으로 감독이 떠맡아온 목회의 역할에서 배제되었다.

설교자와 목회자(minister, 섬기는 자)의 등장은 교회 모든 임원들의 장립에서 안수를 경시하는 경향이 뒤따랐다. 이 진전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펜들톤(W. K. Pendleton)에 의해서 이미 1850년에 안수가 장립에 필요치 않다는 견해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 견해는 또 맥가비(J. W. McGarvey)에 의해서 “안수(장립)하는”(ordain) 것은 단지 “지명하는”(appoint) 것을 의미하였고, 비록 이것이 신약성경에서 기도와 금식 후 이뤄지는 안수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임직하는 것이었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창되어졌다.

#### 1.4 서기들, 감독들, 주(州) 전도자들

19세기 후반에 스톤-캠벨운동의 제자들(Disciples) 지류에서 ‘서기,’ ‘감독,’ ‘주(州) 전도자’라는 직함들로 식별된 목회의 직책들이 출현하였다. 이 직책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운동의 직책들을 대체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에 부가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들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은 장로, 집사 및 전도자의 직책들을 맡은 사람들처럼 회중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 아니라, 새로 생겨난 지방과 총회 조직들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었다.

주(州)와 지방 조직들은 전도자의 후원과 파송을 협력하는 두 개나 그 이상의 회중들의 실천에서 발전하였다. 1830년대 내내 군(郡)과 지역(한곳 이상의 군) 조직들은 전도자들의 사역을 후원하려고 발전시켰다. 1830년대 말까지 새로운 회중(교회)들을



설립함에 있어서 군(郡)과 지역 조직들의 성장과 성공은 주(州)와 지방 조직들이 구성되게 하였다.

총회 조직들의 쟁점은 1840년대에 토론의 주제가 되었다. 1849년 10월 그 운동의 첫 총회가 신시내티에서 소집되었다. 그 모임의 의제가 될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교회 결성의 제안을 결의하는 것이었다. 선교회는 개인 기부자들의 협회였다. 제안은 승인되었고, 위원회가 임명을 받아 선교회 회칙을 초안하였다. 이들 협의들의 결과가 미주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의 설립이었다.

총회 모임직전에 인디애나 주(州) 조직은 주(州) 선교회를 조직하였다. 선교회들을 조직함에 있어서 인디애나 주(州) 조직과 총회의 활동들은 지역과 총회 단체들의 조직에 대한 결정의 원인을 증명하였다. 하나씩 다른 지역 조직들은 선교회 조직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와 같은 새로 생겨난 조직들과 주일학교와 청소년사역을 위한 지역 조직들은 같은 모범을 따랐다. 선교회들처럼 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결정은, 번갈아, 주(州)와 총회 직책들의 성격을 확정하였다. 선교회들은 다른 교단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선교회들에 흔히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였다.

보통, 선교회들은 한 명의 회장, 몇 명의 부회장들, 한 명의 통신 서기, 한 명의 녹취 서기, 그리고 한 명의 회계 담당자가 있었다. 최고 행정 관리자는 회장이 아니었고, 통신 서기였다. 회장의 직책은 훨씬 이름뿐인 정책을 만드는 직책이었다. 그래서 통신 서기의 직책이 그 운동의 지역과 총회 업무에서 최고의 감독직이 되었다.

지역 선교 조직의 통신 서기의 임무는 지역의 복음전도를 감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새로운 회중(교회)들의 설립을 섬길 전도자들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것은 또한 설립된 회중들이 한 설교가의 사역들을 책임지도록 돕는 것을 의미하였다. 그들의 출판물들로 판단해볼 때, 통신 서기들은 또한

그들의 임무가 삶과 교회사역에 관하여 목회자들과 교회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초기 통신 서기들에 관한 글들에는 J. H. 홀러(Fuller)의 『그분의 임재의 만찬상』(*The Table of His Presence*), 토마스 문넬(Thomas Munnell)의 『모든 교회들의 돌봄』(*The Care of All the Churches*)과 J. B. 브리니(Briney)의 『침례의 형식』(*The Form of Baptism*)과 『그리스도인 예배에서의 악기음악』(*Instrumental Music in Christian Worship*)이 있다.

‘통신 서기’란 말은 초기 지역 선교 조직들의 최고 행정 관리 자들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직함이었다. 그러나 때때로 일부 지역들은 다른 직함을 시도하였다. 텍사스 주에서는 ‘감독과 회계 담당자’(superintendent and treasurer)라는 직함이 한동안 사용되었다. 통신 서기와 주(州) 전도자란 직책들이 종종 합병되었던 곳인 알칸사스 주(州)에서는, 그 직함이 자주 ‘주(州) 전도자’(state evangelist)였다. 인디애나 주(州)에서 ‘주(州) 매니저’(state manager)란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처럼, 알칸사스 주(州)에서 ‘선교회 감독’(superintendent of missions)이란 용어가 또한 사용되었다. 지역복음전도의 감독으로써 직책의 성격이 주어졌음으로, 이 모든 용어들이 감독이나 돌봄의 기능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다. 20세기 중반까지 그 직함의 가장 일반적인 칭호는 ‘주(州) 서기’(state secretary)나 ‘지방 서기’(provincial secretary)였다.

다른 지역 조직들의 발전 때문에, 지역 선교회들의 통신 서기들은 19세기 후반기 동안 생겨난 유일한 지역 임원들만은 아니었다. 1870년대 내내 미주 그리스도인 선교회(American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는 지역 주일학교 조직들의 형성을 이끌었다. 그 운동의 다른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모범을 따라, 이들 단체들은 조직들을 만들었고, 통신 서기를 뽑았다. 오클라호마 주(州)에서 이 직책은 성경학교들의 ‘감독’(superintendent)으로 불렸다. 인디애나 주(州)에서 그 직함은 ‘주일학교 전도자’란 직함이 우세하였다. 켄터키 주(州)에서는 ‘성경학교 전도자’와 ‘성경학교 감독’이란 직함이 한동안 채택되

었다. 그 직함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업무는 지역을 통틀어 주일학교들의 수(數)와 질을 키우는 것이었다.

1874년에 설립된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는 곧이어 주(州) 지원 단체들을 조직하는데 관여하였다. 그 지원 단체들은 각기 통신 서기를 선출하였다. 이 직책의 임무는 수(數)와 선교에 대한 이해력과 세계 선교임무를 향해 무언가를 하기로 헌신한 여성 단체들의 헌신을 키우는 것이었다.

19세기의 마지막 20년에, 연합 청소년 조직인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에서 호응을 받게 되었다. 몇몇 주(州)들에서 제자들 그리스도인 면려회(Disciples Christian Endeavor)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감독들로 알려진 통신 서기들이 선출되었다. 이들 직책들의 임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에서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 단체들의 수(數)와 질을 키우는 것이었다.

총회 선교 조직들에서 통신 서기의 임무는 포괄적인 중심을 제외한 주(州) 선교 조직들에서의 통신 서기의 임무와 비슷하였다. 통신 서기들은 (점차적으로 선교사로 언급된) 전도자들을 채용하고 감독하며, 그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였다. 총회 선교회들의 통신 서기들의 출판물들은 그들이 교회의 선교에 관하여 교회에 교육을 시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등장한 세 개의 총회 조직들은 선교, 주일학교, 그리스도인 면려회 조직들과는 다른 유형의 것들이었다. 이들 조직들은 전국 자선 협회(National Benevolent Association), 교회 확장 위원회(Board of Church Extension) 및 목회 구제 위원회(Board of Ministerial Relief)들이었다. 국내외 교회들의 설립과 후원, 주일학교들의 조직 혹은 그리스도인 면려회(Christian Endeavor)의 진작을 통한 복음전도의 어떤 형태를 담당하기보다는 이들 조직들은 그리스도인 봉사의 형태들에 중

사하였다. 수행된 봉사들 즉 궁핍한 사람들의 돌봄, 교회당들을 건축할 용자기금 및 노령의 목회자들과 몸이 불편한 목회자들과 또 그들의 가족들의 후원이 교회의 더 큰 복음전도의 임무를 후원하거나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 기존의 모델을 좇아서 각 조직의 장은 통신 서기였다.

총회 조직들의 책임들이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 보직들이 추가되었다. 전형적으로 ‘감독’ 혹은 ‘서기’란 직함은 이러한 보직들과 동일하였다. 주(州) 선교회들은 동일한 패턴을 따랐다. 1920년에 오클라호마 선교회(Oklahoma Missionary Society)는 ‘청지기 서기’란 직함으로 개발 임원을 추가하였다.

그래서 19세기 말까지, 그 운동의 제자들 지류는 캠벨의 삼중 계획, 즉 서기 혹은 감독의 직책을 포함시키지 않은, 지역 또는 총회 목회의 직책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임원들의 다수가 여성들이었다. 그리스도인 여성 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는 여성들의 조직이었고, 그 조직의 모든 임원들이 여성들이었다. 다른 조직들, 특히 주일학교와 그리스도인 면려회 조직들도 또한 지도자 보직들에 여성들을 채용하였다.

## 2. 20세기 발전들

###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20세기는 스톤-캠벨 운동의 제자들 지류가 목회를 이해하고 배열한 방법에서 보다 더 발전을 가져왔다. 이 발전들은 여섯 가지 쟁점들과 관련이 있다: (a) 목회에 사람들을 안수할 권한 (b) 안수 받았고 면허를 소지한 목회자들의 신분 (c) 지역과 총회 직책들의 성격 (d) 목회의 지위 (e) 장로와 집사의 직책들과 (f) 목회에서 여성들의 역할

### 2.1.1 안수 권한

1930년대까지 제자들은 회중 밖에서 부름을 받고 목회 기능에 풀타임으로 전임하는 사람은 캠벨이 말한 장로나 전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직책의 소유자, 즉 목회자(섬기는 자)의 직책이란 것을 깨달았다. 게다가 제자들은 이 직책이 한 회중의 직책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였다. 목회자들은 처음에는 한 회중을 섬겼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회중을 섬겼기 때문에 목회자는 한 회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全) 교회(the whole church)에 속하였다. 따라서 목회를 위한 안수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개개 회중의 책임일 수가 없었다. 최소한 거기에는 피차 받아드리고, 신약성경의 것들보다는 더 상세하며, 모든 안수기관들에 의해서 적용되어질 표준들이 필요했다.

목회를 위한 안수가 회중의 문제로 보아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한 최초의 제자들은 노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 주(州)들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제자들이었다. 1886년에는 이미 동부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제자들이 목회에 대한 표준들을 세우고, 교회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안수를 승인한 총회를 조직하였다. 1895년 26명이 안수를 받도록 추천을 받았으나 단지 12명만이 허용되었다. 안수를 승인하는 권한여부에 관한 유사한 진전들은 20세기 초반 텍사스 주의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제자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1935년 샌안토니오(San Antonio)에서 열린 제자들의 컨벤션에서 그 이슈를 연구하도록 안수 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를 지명하였다. 안수는 때때로 '지역교회 평의회'(local church council)라 불리는 안수 평의회(ordination council)에 의해서 승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고가 위원회(commission)의 보고를 포함해서 리치몬드(Richmond)에서 열린 컨벤션에서 1939년 승인되었다. 이 평의회(council)는 어느 회중이든 그 회중의 목회자나 장로들의 요청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었고, 지역 안수 위원회(regional committee on ordination), 즉

그 같은 위원회가 존재하는 그들 지역들에 조직된 위원회에 의해서 인정되었다. 그 평의회는 세 개 이상의 제자들의 교회들에서 각각 목회자들과 한 명 이상의 장로들로 구성되었다. 이 평의회는 투표결과와 후보자의 안수증서에 서명할 세 명의 목회자들의 공개적인 찬성에 따라서 안수는 승인되었다. 평의회는 찬성투표가 있는 후, 안수식은 후보자의 개 교회, 지역 컨벤션 센터, 혹은 후보자가 졸업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열렸으며, 평의회가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다.

지역교회 평의회 절차는 안수가 여전히 대부분은 지역 교회 문제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었다. 게다가 안수 위원회의 접근 도구는 한결같지 않았다. 일부 회중들은 어떤 다른 회중과 협의하지 않은 채 사람들을 목회자로 안수하는 것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 문제에 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경향은 목회자로 안수할 책임을 더 큰 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체(body)에로 이동하는 방향 속에 분명히 있었다. 1964년 디트로이트(Detroit)에서 모인 제자들의 컨벤션은 안수가 “지역과 연합, 현재와 영원을 통틀어 전(全) 교회의 식(式) 혹은 예식”이며, “주(州) 또는 지역위원회(state or area Committee) 혹은 목회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Ministry)의 지도아래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다.

목회자의 직책에 안수할 권한에 관한 동시대 제자들의 입장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 속에 진술되어진다. 그 문서는 1971년 루이빌(Louisville)에서 열린 총회(앞서 열린 제자들 컨벤션들의 후속 총회)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목회 후보자들은 그들이 회원권을 가진 제자들의 승인된 회중이나 회중들에 의해서 안수를 위해 추천되어야 한다. 보통은 추천 회중 혹은 회중들의 대표들이, 지역의 대표들과 가능하다면 총회와 세계(ecumenical) 교회 대표들과 함께 안수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안수가 “지역의 승인과 지도아래에” 있다는 것이

다.

### 2.1.2 안수목회자들과 면허목회자들

리치몬드(Richmond)에서 개최된 1939년 컨벤션 모임에서 인증된 안수 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의 보고서는 목회에의 안수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권고하였다.

\*목회를 위한 선한 도덕적 성격과 신체상의 적합성

\*대학의 전 과정과 가능하다면 신앙훈련의 수료

\*진정한 지도력, 비전, 목사의 자질들과 설교 능력을 보여주는 기독교 사역의 경험

이들 기준 가운데 교육의 자격을 뺀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충족한 후보자들은 안수를 받기보다는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의 면허와 안수』(*License and Ordination of the Christian Minister*)란 제목의 1948년 팸플릿은 목회의 면허와 안수 사이의 차이가 안수는 기간이 종신이며, “인정과 헌신의 공공봉사”가 수반되는 반면, 면허는 기간이 제한적이고, 보통 매년 갱신된다는 점이다. 그 팸플릿은 또한 면허의 발급이 (1) 목회를 위한 대학과정을 마친 후에 안수를 받게 된다고 할 때, “안수가 더욱 중요할” 대학생들과 (2) “파트타임 목회자로 섬기고 싶어 하는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1964년에 안수를 위해 추천된 기준들이 디트로이트(Detroit) 컨벤션에 의해서 대학교육과 마찬가지로 신학대학원 교육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제기되었다.

1968년에 점성적인 계획으로써 처음으로 채택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를 위한 계획은” 안수와 면허 목회 모두의 신분을 인정한다. 6부 91-93단락들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가 “다음의 직책들을 가지고 있는 남성들과 여성들을 교단의 목회 계급(질서)에로 끌어들이는다고 진술한다. (a) 안수를 통해 장립된 안수 목회자의 직책 . . . (b) 주기적인 관찰을 받으며 특정 상황들에서 목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가

받은 . . . 면허 목회자의 직책.” 그 계획은 “특화된 전임 교회 천직에 . . . 적법하게 임명되는 사역자를” 면허를 받을 사람들의 초기 명단에 추가한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은 면허발급은 “지역의 권한과 지도”하에 있다고 진술한다.

### 2.1.3 지역과 총회 직책들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의 업무는 20세기 내내 총회 조직들의 수적(數的) 증가를 시작으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겪었다. 20세기 초기의 중요한 행정변화는 최고 실행기능(회장직)을 이전에 통신 서기직의 업무였던 최고 행정기능과 묶으려는 총회 조직들의 경향이었다. 개개의 총회 선교회들에서 통신 서기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동시에 회장직은 전임으로써 이전에 통신 서기 직책에 부여된 많은 책임들을 수행하는 급여가 지급되는 보직이 되었다.

1920년에 6개의 총회 조직들이 합병하여 연합 그리스도인 선교회(United Christian Missionary Society)를 만들었다. 최고 실행기능과 최고 행정기능이 세기 초에 형성된 패턴에 따라 그 새 조직에서 합병되었다.

1950년대 후반에 제자들 업무 통일의 관심이 선교회들, 여성들의 조직들, 신앙교육의 부서들과 다른 그 같은 지역조직들을 통합하는 성공적인 노력들에 표현되었다. 같은 지리상의 지역에서 일하는 독립조직들에 의해서 고용된 다수의 개인들보다는 이제는 한 사람이 지역 혹은 ‘주(州)’ 직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제자들 업무 통일의 관심은, 1960년대에 재구성 위원회(Commission on Restructure)의 업무로 시작한, 흔히 재구성(restructure)으로 알려진 더 큰 조직의 진행으로 이끌었다. 그 위원회는 교회를 회중으로써 지역으로써 또 총회의 표명으로써



그 조직체를 조직상으로 표명하는 한 조직체(one body)로 생각하였다. 재구성 위원회가 고안한 조직 계획의 기본은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이 교회들을 섬기는 기관들(agencies)이 아니라 교회의 지역과 총회 표명들의 조직들이란 확신이었다. 이것은 점차 제자들이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임원들을 교회의 지역과 총회 표명들의 성례와 목양 목회자들로서 보게 하였다. 이들 직책들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지역 목회자,' '총회 목회자,' '회장'과 같은 재구성된 교회의 몇몇 직책들에 사용된 명칭들에 반영된다. 다른 직책들은 계속해서 '회장'과 '서기'와 같은 명칭들을 갖는다.

#### 2.1.4 목회자의 신분유지(Ministerial Standing)

1890년대부터 그 이후 제자들 연감들은 목회자들의 명단을 포함하는데, 이 명단이 지역 서기들과 총회 조직들이 보낸 보고서들을 근거로 편찬되었음을 보여주는 설명과 함께 들어 있다. 종종 그 설명은 만약 회중들이 그들의 목회자들의 이름을 주(州)나 지방 서기에게 보고하는데 좀 더 신속했더라면 그 명단이 좀 더 완벽했을 것이라는 진술을 포함한다. 이것은 목회자의 신분유지가 회중들에 의해서 수여되었다는 이해를 반영한다.

1960년대 내내 제자들은 신분유지를 수여하는 책임을 회중들로부터 더 큰 교회로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 발전의 배경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부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의 분리에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의 어떤 후원도 반대하였다.

1962년 제자들의 컨벤션에서 승인된 결의안 40번은 “연감에 열거된 목회자들은 국제 컨벤션(International Convention)과 그것의 보고 단체들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을 표시해야한다.”고 진술하였다. 연감에 목회자들을 열거하는 책임이 지역 서기들과

총회 조직들의 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있으므로, 그 결의안은 목회자들의 명단에 포함할 이름들을 제출할 때, 누구를 넣고 빼지를 비판적으로 판단해야할 그 임원들에 대한 요구였다. 사용되어질 기준은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의 협력 프로그램에의 헌신이었다.

1971년 총회가 승인한 “목회 직제에 대한 정책들과 규범들”(Policies and Criteria for the Order of the Ministry)은 목회자가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관계들을 유지하는”한 신분유지가 지속된다는 것을 진술한다. “정책들과 규범들”은 또한 신분유지를 위한 두 가지 다른 요구 사항들을 열거한다. (1) 목회자는 “그 목적이 목회로써 교회가 인정한 업무에 있든지, 혹은 그 목적이 목회로써 교회가 인정한 섬김에 있든지” 목회자의 의무들을 반드시 신실하게 수행해야한다. 그리고 (2) 목회자는 “공부, 연구, 성장, 개선” 프로그램들에 반드시 참여해야한다. 은퇴시기에 서있는 목회자들은 신분을 유지한다. 목회자의 신분증명을 위한 책임은 지역들에 있고, 그 책임이 총회 위원회(General Board)가 세운 위원회(committee)에 있는 총회 목회들에 고용된 사람들의 경우는 제외된다.

그의 자격증명서들이 검토 중에 있던 제자들 목회자 짐 존스(Jim Jones)가 그의 추종자들을 집단 자살로 이끈 1978년의 존스타운(Jonestown)의 비극에 대응하여, 총회(General Assembly)는 “정책들과 규범들”을 수정하였는데, 목회자는 신분유지를 위해서 목회 직제 가입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자격들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한다는 표준이 포함되었다. 이 표준은 현직과 은퇴 목회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목회 직제 가입에 요구되는 개인적인 자격들은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인 제자직의 삶에의 헌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목회 직제에서 섬기려하는 명확하고 지적인 결단,

\*그 직책의 요구에 충분한 개인적 적절성, 즉 정신적 육체적

능력들, 정서 안정과 성숙도와 도덕적 표준들을 포함.

### 2.1.5 장로들과 집사들

19세기의 후반부에 목회자의 직책과 구별하여 등장한 장로 직책은 20세기에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첫 번째 변화는 다른 주류 개신교들과 함께 회중을 도덕적으로 감독하고 징계하는 공식적 관행을 버리려한 제자들의 경향이었다. 회중을 도덕적으로 감독하고 징계하는 공식적 임무가 제거되면서 장로들의 규정이 정책 결정들(우리가 특정한 청지기직 프로그램을 집행해야 하는가 혹은 아닌가?)과 목회자를 “채용하고 해고하는” 중요한 임무로 축소되었다.

O. L. 셸톤(Shelton)의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교회』(*The Church Functioning Effectively*)가 주창한 회중조직의 계획이 폭넓게 수용됨으로써 이 규정의 크기는 따라서 줄어들었다. 셸톤은 회중의 정책 결정들이 장로들에게 맡겨져서는 안 되고, 전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 집사들, 여성 집사들로 구성된 하나의 확대 관리 위원회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사들과 구별되는 장로들의 특별한 역할은 토의 그룹으로써 혹은 목회자 자문 위원회로써 그들이 섬기도록 되어있었다. 장로들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 같은 모임들을 소집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관리 위원회의 정책 입안 권한을 찬탈하려는 장로들의 모임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

제자들 장로의 이전 ‘규정’의 남아 있는 흔적은 장로가 주의 만찬 기념에서 갖는 두드러진 위치이다. 그러나 여기서조차 장로의 역할은 줄어들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많은 제자들 회중들이 초교과적 예전 회복에 참여함으로써 주의 만찬상을 벽이나 강대상으로부터 옮겼고, 목회자가 주의 만찬상 배후에 장로들과 함께 앉도록 허락하였다. 대부분의 경우에 장로들은 현재 주의 만찬상에서 기도들을 올리고, 집례는 목회자가 한다.

셸톤 계획의 영향은 또한 집사 직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캠벨

은 장로들을 교회의 감독자들로, 집사를 교회의 봉사자들로 언급하였다. 장로들과 집사들 모두로 구성된 확대 관리 위원회 내용을 포함한 셸튼 계획은 게다가 봉사자들을 감독자들로 만드는 효과를 갖고 있었다.

교회 징계의 공식 관행의 포기과 셸튼 계획의 영향으로 인해서 주의 만찬상에서 장로들이 기도를 올리는 것 말고는 장로들과 집사들 사이에 아직도 어떤 차이점이 남아있는지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장로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다. 그 답변은 회중마다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일부 회중들에서 장로들은 영적인 지도자들로 간주되어 주의 만찬상에서 그들이 올리는 기도들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목양의 책임들을 통해서 회중의 교육과 돌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갖는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을)를 위한 계획”(The Design for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의 제6부 97단락은 장로는 “그녀를 뽑은 회중과 더불어 침례와 주의 만찬의 집행과 예배 관리의 공유와 회중의 목회 돌봄과 영적 지도의 공유와 같은 구체적으로 임기가 정해진 목회의 기능들을 행사할 권한이 주어진다고 진술한다.” 집사 직책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들의 목록은 ‘공유’(sharing)란 말 대신에 ‘보조’(assisting)란 말로 대체한 것 말고는 장로 직책의 것과 동일하다. ‘공유’란 말은 장로와 목사 직책과의 역사적 관계를 지적하는 반면에 ‘보조’란 말은 교회 봉사자로서 집사의 지속적인 정체성을 반영한다.

### 2.1.6 여성 목회자들

19세기 후반에 다수의 여성들이 제자들의 지역과 총회 조직들에서 관리의 직분들에서 섬겼다. 다수의 여성들이 회중들의 목회자들로서 불렸으나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다.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이 회중들에서 가장 맡을 것 같은 직원 직분은 기독교 교육의 담당자(director)이거나 유년부의 사역자였다.

1970년대에 접증하는 여성들의 수가 목사와 부목회자의 직분들을 맡기 위해서 청빙되었다. 1984년까지 112명의 제자들 여성 목사들(제자들 목사들의 4.2 퍼센트)과 120명의 부목회자들(제자들 부목회자들의 32.8 퍼센트)이 있었다. 1984년에 595명의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들이 전체 안수 받은 제자들 목회의 거의 10 퍼센트에 상당하였다. 1980년대 초에 여성들은 제자들 신학대학원 등록수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20세기가 시작되기까지 그 비율은 2분의 1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일부 회중들의 측에서 여성들을 목회자들로 특히 담임 목회자들로 고용하는데 계속 주저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든 표명들의 목회에서 여성의 수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근거가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여성 목회자들의 수의 증가는 이전에 그들에게 닫혀 있었던 직업들에 대해서 고려해볼 것을 여성들에게 격려했던 1970년대의 여성 운동과 복음을 나눔과 사람들의 필요를 돌봄에 기독교 여성들이 바친 헌신의 덕택이라고 할 수 있다.

## 2.2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20세기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확산되기 시작된 회중 외(外) 구조들을 비성서적인 것으로 반대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성직자주의와 극단적인 회중주의로 특징지어진다.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정식 안수와 면허개념을 비성서적이고, 만인제사장개념을 약화시키며, 사제와 평신도 계급에로 그릇된 교회분리를 영속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중심에 있었던 많은 이슈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레오 볼즈(H. Leo Boles, 1874-1946)는 신약성경이 가르친 유일한 조직이 장로들과 집사들로 구성된 지역 회중의 것이었다고 20세기 초에 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들 대

부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상에는 어떤 교회 조직도 없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다른 직원들은 없다.” 이들 전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의 초점은 교회에서의 여성 지도력의 역할에 대한 이슈를 포함해서 지역 회중들 속에 있는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고 전도자들, 설교자들 혹은 목회자들의 성격과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 2.2.1 장로들과 집사들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거의 보편적인 견해는 개 교회(회중)의 장로들이 그 교회의 통치를 위한 유일한 권위들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장로들에게 권한을 위임하셔서 그들이 속한 회중을 지도하고 치리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한은 지역 회중에 국한된 것이었다. 또 한 가지 강한 강조는 신약성경이 명확하게 지시한 바가 없는 법규들을 만들 권한이 장로들에게 없다는 것이었다. 비록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서 발견되는 장로들의 자격들 혹은 특성들의 열거들이 규범적이라고 간주하였을지라도, 장로들을 임명하는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정한 관행들은 회중들마다 달랐고, 장로들을 따로 세우고, 임명하거나 “장립”(안수)하는 것은 종종 회중의 회원들이나 위원회에 (혹은 장로들에게) 자격이 있다고 그들이 믿고 추천한, 아직 임기가 남은 장로들에 의해서 이뤄졌다. 추천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장로로 섬길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은 후에, 만약 그들이 동의하면, 후보자 명단을 심사숙고할 수 있도록 회중에 공개시킨다. 만약 성경적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되지 않으면, 후보자 명단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종종 간단한 의식을 치른 후에 임무수행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장로들이 평생 혹은 육체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섬기게 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더 큰 교회들 사이에서 일어난 20세기 후반의 중요한 경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정한 장로들을

임명하는 것이었다. 임기를 마치면 적어도 일 년간은 장로 직책을 쉬게 하고, 휴식기를 거친 다음에 다시 장로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경향은 회중들이 일 정기간 간격으로 장로들을 재신임에 붙이는 것이었다.<sup>2)</sup>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미국 기독교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사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장로들이 갖는 치리기능은 20세기 동안에 축소되었다. 장로권이 발동했을 때, 오클라호마 주 콜린스빌(Collinsville) 소재 그리스도의 교회가 1984년 겪은 사례에서처럼, 장로들이 종종 법정싸움에 연루되곤 하였다. 그들이 종종 주의 만찬을 집례 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장로들과는 달리 이 기능이 장로들에게 주어진 의무이거나 유일한 것으로는 결코 생각되지 않았다. 회중 가운데 집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만찬을 집례 할 수 있었다. 장로들의 실제적인 기능은 종종 디렉터들의 법인 이사회의 것을 본떠서 만들었는데, 중요한 재정과 경영상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목회자와 다른 직원들을 고용하고 감독하며, 집사들의 일을 관리하였다. 이 본보기에서 성공적인 사업가들은 종종 임명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 되었다. 교회 통치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20세기 후반에 교회 운영의 재정과 실무는 집사들에게 위임하고, 장로들은 영적인 목자들로 보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집사들은 그 헬라이어 단어가 의미하는 대로 교회의 임명된 봉사자들로 간주된다. 기독교의 오랜 전통을 숙고해 볼 때, 장로들이 교회의 영적인 복지를 돌본 반면에 집사들의 기능은 교회의 세속적인 업무에 이바지한 것으로써 특징지어져왔다. 장로들처럼 집사들의 사역은 그들이 회원으로 있는 회중에 국한된다. 집사들의 임명을 위한 절차는 장로들의 임명절차와 늘 동일하다. 종종 집사들은 '주니어 장로들'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들이

2) 역자 주: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3년마다 한 해 동안 쉬게 하거나 휴식기 없이 매년 새로 선출하는 방식 등을 취하고 있다. 선출만 된다면, 평생 동안 장로 직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조동호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장로 집사 선출" 참고. <http://kccs.pe.kr/misc18.htm>.

집사의 역할을 잘만하면, 더 높은 직책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집사들은 장로들 아래서 종종 특정한 사역들의 책임자로 섬긴다.

## 2.2.2 전도자들 혹은 설교자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전도자 혹은 설교자의 역할은 20세기 동안에 '초빙 설교자들'(located Preachers)에 대한 반감에서부터 훈련받은 장기(長期) 회중의 목회자들의 확립된 규범에까지 발전하였다. 스톤-캠벨운동 초기부터 전해져온 우세한 모델은 전도자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개심자들에게 침례를 베풀며, 교회들을 세운 떠돌이 목회자들로 이해되었다. 회중 밖에서 고용된 전문 목회자들과는 달리 장로들은 궁극적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을 갖고 있었다. 데이비드 립스콧은 1905년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요,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다."라고 외쳤다. 립스콧은 성직자를 향해 반감을 가졌던 초기 캠벨을 숙고하면서 약정된 급여를 받고 한 회중에서 풀타임 전담하는 직업 설교자들을 반대하였다.

이 태도는 점증하는 수의 회중들의 관행과 충돌하였고, 20세기 초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논쟁과 분열을 일으켰다. 풀타임 전담 고용 목회자들을 반대한 자들은 교회들이 직업 목회자를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함으로써 성경교회의 통치를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그것을 "사제목사 체제"(the pastor system)라고 공격하였다. 실제로 교회는 전도자 혹은 목회자의 역할이 장로들의 것보다 못한 아래의 것으로 언제나 보았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장로들을 임명한 신약성경의 전도자들에 관한 설명들을 근거로 "전도자의 권위"를 주창하기도 했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기능을 전적으로 회중의 장로들의 감독아래 있는 것으로 이해해왔다.

미국 기독교 전반에서 종종 그랬듯이, 20세기 초중반의 상당 기간동안 목회자들의 사역기간이 짧았고, 보통 일 년에서 삼년



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까지는 임직기간이 상당히 늘어났고, 목회자들이 평생사역의 40퍼센트까지를 단지 2-3개의 교회들에서 보내기에 이르렀다. 어떤 경우들에서는 장기임직기간이 사실상 목회자의 권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장로들의 직(職)과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지속적으로 회중에서 궁극적인 권위의 중심이 되어왔다. 장로가 없는 곳에서는 대부분의 회중들이 전회원이 모이거나 다른 경우들에서는 교회의 남성들이 모이는 등의 '실무 모임'(business meeting) 체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 2.2.3 여성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 역할에 관한 이슈는 20세기의 상당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논의의 문제였다. 가장 자주 다뤄졌던 주제들의 한 가지가 여성 집사들의 문제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정식으로 여성을 집사로 임명하는 것이 드문 일이었지만, 그 관행에 대한 성경적 전례가 니콜(C. R. Nichol, 1876-1961)과 브르워(G. C. Brewer, 1884-1956)를 포함해서 20세기의 수많은 유력한 지도들에 제기되었다. 1970년대에 몇 개의 교회들이 '집사'(deacon)라는 말을 완전히 제거해 버렸다. 그 대신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함하는 '목회 지도자들'(ministry leaders) 체제를 채택하였다.

더 큰 주제가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 나온 수많은 책들과 기사들의 재료였다. 게다가 몇몇 회중들이 그 이슈에 집중된 연구를 하였고, 설교자와 장로의 역할들이 고려된 것은 아니란 것을 처음부터 명확히 밝히기는 하였지만, 종종 공동예배지도력에서 여성들의 역할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점점 더 많은 수의 교회들이 여성들을 목회자로 섬기도록 고용해 왔지만, 이들의 사역은 거의 언제나 아이들과 여성들 혹은 교육파트들에 국한된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소속 종합대학들에 있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들 모두에서 성경과 종교를 전공하는 여성비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회에서의 여성에 관한 이슈는 스톤-캠벨운동의 이 지류를 위한 최전방에서 지속될 것이다.<sup>3)</sup>

### 2.3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교회론의 이슈들은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1920년대-1970년대) 사이에 깊어져간 분열의 뿌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긴장을 조성한 회중 목회의 미세구조들보다는 교파 목회의 대형구조들에 더 있었고, 양 지류들은 결국 스톤-캠벨운동에서 항구적이고 사도적인 삼중직 목회(장로들/감독들, 집사들, 전도자들)와 개 교회의 설교목사들의 임명(local appointment)에 전념했던 제1-2세대 지도자들의 저술들에서 끌어냈다.

제자들의 안수위원회(Commission on Ordination)가 1939년 주(州) 내의 교회들이 안수 위원회들(ordination committees)을 만들어서 개 교회 목회자들(local ministers)의 안수와 설교허가증 부여를 감독하게 하자는 '리치몬드 보고서'(Richmond Report)를 내놓았을 때, 많은 보수적 제자들이 그 제안을 그들의 목회자들을 안수할 개 교회들의 특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일부는 그 보고서가 오랫동안 스톤-캠벨운동의 모호한 관행이었던 안수 그 자체의 후보자들의 논리적 근거와 당위성에 대해서 연구를 지속하기보다는 절차들의 문제로 뛰어넘어버렸기 때문에 비판적이었다. 일부는 개 교회에 파송된 일종의 선교사인 전도자의 초기 모델의 상실, 즉 설교목회의 전문화(직업화)를 두려워하였다. 전도자의 신임장은 그가 선포한 복음

3) 역자 주: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의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신학을 전공하는 여성들의 등록비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여성목사들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미국 순복음(Assembly of God) 교회들의 경우 19.2퍼센트, 미국 형제들의 교회(Church of Brethren)의 경우 1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으로 되었지, 그가 받은 신분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았다.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은 정체성, 신분, 개 교회 목회자들의 안수에 대해서 모호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과 마찬가지로 개 교회의 설교자가 치리권이 없는 전도자였는지, 혹은 설교 장로였는지에 대한 물음은 오래도록 해결이 된듯했지만, 전도자로서 목회자의 구체적인 역할에 관한 물음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전도자였고, (원칙적으로) 한 곳에서 항구적인 정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그가 같은 회중에서 오랜 기간 사역을 하였다면, 그의 신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설교자는 기능적으로 적어도 장로나 마찬가지로였고, 아마도 동등한 장로들 가운데서 수석(首席)으로 활동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경향은 종종 한 교회를 20년 넘게 섬긴 담임 목회자들을 둔 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점증적으로 관찰되어져왔다. 다른 한편, 상대적으로 작거나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서는 설교 목회자를 전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관행에 확고히 묶여 있어서 그의 목회신분이 그가 섬기게 될 어느 한 회중에 끝까지 묶이지를 못했다.

안수는 상당히 모호한 주제로 지속적으로 남아있었고,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일부 회중들에서는 심지어 양면적 가치로 남아있었다. 제임스 드포레스트 멀치(James DeForest Murch)가 바르게 관찰한대로, 목회 사역에 부적절한 후보자들이 교회들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까지, 스톤-캠벨운동에서 안수는 그다지 이슈가 되지 못했다. 지도자들은 '사도적 계승'(apostolic succession)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전도자들과 능력을 과시한 다른 지도자들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인수하는 것을 걱정하였다. 흥미롭게도 그들 자신의 목회자들을 선택하고 인수할 개 교회(회중)의 권리를 유지하려고 아우성을 친 바로 그 동일한 교회들이 또한 대부분 인수하실 분은 하나님 한분뿐이지, 인간들이 아니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 세우고 안수할 하나님의 능력의 인정은 회중에게만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표준관행은 회중의 회원들이 신임 목회자, 신임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그들을 안수하는 것은 장로들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설교 목회자들이 초빙하는 회중에 의해서 항상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모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회중들이 다시 안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공식적인 목회 직제(order)를 결코 인정한 일이 없지만, 한 가지 곧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만큼은 온몸을 던져서 거부하였다.

### 3. 결론

목회는 스톤-캠벨운동 내에서 중요한 차이점들이 부상한 분야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모두 19세기 후반까지 그 운동에서 부상한 회중 리더십 모델을 강하게 회상시키는 목회 모델들을 유지했거나 발전시킨 반면,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안수 목회자(ordained minister)와 면허 목회자(licensed minister)의 직책들을 포함하는 목회 직제(order)를 발전시켰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그 교회의 회중이, 지방회가, 총회가 명시한 리더십 속에서 섬겼다. 그러나 유사점은 그 운동 내내 남아있다. 다른 전통들과 대조적으로 스톤-캠벨운동권내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장로 직책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게다가 세 지류들의 모든 교회들은 그 운동이 헌신해온 만인제사장설을 지속해서 예우한다. 말씀과 행위로 복음을 나누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다. 그래서 스톤-캠벨운동에서 목회는 가르치고, 봉사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감독하는 리더십으로써 계속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실천되어진다.

## 【참고서적】

- Anderson, Lynn. *They Smell Like Sheep: Spiritual Leadership for the 21st Century* (1997).
- Bennett, Weldon Bailey. "The Concept of Ministry in the Thought of Representative Men of the Disciples of Christ"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1971).
- Boles, H. Leo. *The Eldership of the Churches of Christ* (1900).
- Brewer, G. C. *The Model Church* (1919-1957).
- Cannon, John Harold. "New Direction for Church Leadership: The Reaffirmation and Selection of Elders Among Churches of Christ" (D.Min. thesis, Abilene Christian University, 1991).
- Casey, Pat. "The Role of the Preacher as Set Forth in the Gospel Advocate from 1895 through 1910" (D.Min. thesis, Harding Graduate School of Religion, 1980).
- Chitwood, Robert.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Doctrine of Ordination in the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North American Christian Convention) with Implications for the Future" (D.Min. dissertation,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1988).
- Foster, Douglas A., Hailey, Mel E. and Winter, Thomas L. *Ministers at the Millennium: A Survey of Preachers in Churches of Christ* (2000).
- Freed-Hardeman University, *Gender and Ministry: The Role of the Woman in the Work and Worship of the Church* (1990).
- Murch, James Deforest. *The Free Church: A Treatise on Church Polity with Special Reference to Doctrine and Practice in Christian Churches and Churches of Christ* (1966).

- Nichol, C. R. *God's Woman* (1938).
- Osburn, Carroll D. Ed. *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 2 vols. (1993-1995).
- Osburn, Carroll D. *Women in the Church: Reclaiming the Ideal* (2001).
- Sandifer, J. Stephen. *Deacons, Male and Female? A Study for Churches of Christ* (1989).
- Spain, Robert Carl. "A Study of the Evangelistic Ministry in the Churches of Christ" (Ph.D. dissertation,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63).
- Walker, W. R. *A Ministering Ministry* (1938).
- Williams, D. Newell. *Ministry Among Disciples: Past, Present, Future* (1985).

## 제6장 여성목사 합당한가?

### 차례

1. 유대교적 관점
  2. 성서적 관점
    - 1) 제도적 관점
    - 2) 구원론의 관점
  3. 교회사적 관점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추이(推移)적 관점
    - 1) 19세기
      - (1) 목회직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
      - (2) '목회자'(섬기는 자, Minister) 체제의 확립
      - (3) 19세기 여성 목회자들
    - 2) 20세기
      - (1) 그리스도의 제자들/그리스도인의 교회
      - (2) 그리스도의 교회들
      - (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 결론

여성 목사가 과연 합당한가? 성서나 역사에서 그 당위성이 확보되고 있는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서의 추이(推移)는 어떤가?

### 1. 유대교적 관점

유대교 성전에는 여성 목회자가 없었다.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는 토라에 실린 613개의 계명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성전(성막)에서 섬기라는 계명을 주시지 않았다. 둘째는 성전의 일이 여성이 하기 어려운 거친 일이었기

때문이다. 성전의 일에는 제물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긴 후 각을 뜨고 내장과 내용물을 치우는 일이 포함되었다.

유대교 회당에서도 여성에게 직책이 주어지지 않는다. 유대교 회당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성과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회당의 회원으로 관주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의 개혁주의(진보주의) 유대교인들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남성들과 함께 본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당과 통하는 별관에 따로 모인다. 또 여성이 회당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나 기도회에서 베라코트(특히 쉐모네 에스레이)의 암송과 토라 낭독은 공동체를 위한 의무, 즉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지 않고 자발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여성은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다. 유대교인들의 회당예배는 제사예배가 아니고, 성전시대에 성전에서 봉헌되었던 제사예배의 횡수만큼 갖는 기도회 또는 베라코트의 암송을 위한 모임이다.

유대교에서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이 남성들의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회에서의 여성들의 제한적인 역할을 여성차별로 보지 않고, 보상의 차원으로 본다.<sup>1)</sup>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상반절)는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도록 한 것은 당대의 그리스문화를 적용했기보다는 토라에 실린 613개의 계명에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계명이 없다는 유대교인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하반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거론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 2. 성서적 관점

### 1) 제도적 관점

구약성서시대와 마찬가지로 신약성서시대에도 여성에게 성직이 주어지지 않았다. 유대교 성전을 섬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1) “The Role of Women,” <http://www.jewfaq.org/toc.htm>



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장로들과 집사들)은 모두가 남성들이었다. 그렇다고 여성들의 영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와 같은 여성 지도자가 있었듯이, 신약성서시대에도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의 터로 추정되는 유적지를 므깃도(Megiddo)에서 발견하였다(2005년 11월 5일). 이 교회당은 3세기 중반부터 4세기 초경, 극심한 기독교 박해시대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of the god, Jesus Christ)를 기념하여 세워진 이 교회당은 한 로마관리와 아케투스(Aketous)란 이름의 한 여성의 헌금으로 지어졌다. 이렇듯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은 고금을 막론하고 컸다.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Priscilla, 롬 13:3)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일군이었고, 바울의 추천을 받았던 뵈뵈(Phoebe, 롬 16:1)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이었으며, 루디아(Lydia)는 바울이 의지했던 빌립보 교회의 큰 일군이였다. 이들은 모두 바울에게 목숨이라도 낼 줄만큼 헌신적인 일군들이었다.

뵈뵈의 직책이 “교회의 일군”이었는데, 여기서 ‘일군’은 ‘디아코노스’이다. ‘디아코노스’는 ‘집사’ 또는 ‘일군’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쓰이는 범위가 넓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모두 ‘디아코노스’였다. 이 용어를 ‘집사’로만 생각해서 뵈뵈를 여집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만일 뵈뵈가 정말 집사였다면, 집사도,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직이기 때문에 뵈뵈를 성직자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여성이 집사와 장로직에 올랐다는 기록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나 주후 112년경에 소 플리니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쓴 편지에서 비두니아 지역의 두 명의 여성 집사를 언급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여성 동역자들이 장로(목사)로 안수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성서는 장로(감독, 목사)의 자격자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할 것과(딤후 3:2)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할 것을(고전 14:34) 지시하고 있어서

여성 목사의 당위성을 찾기가 녹록치 않다. 바울은 장로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언급하였는데, 감독자(Overseer)의 기능과 목사(Shepherd)의 기능이었다(행 20:28). 이 기능이 여성들에게 주어졌다는 신약성서의 증거는 희박하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신약성서시대의 예배당 구조와 조직이 유대교 회당의 것과 거의 같았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처음 교회를 세운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몸에 깊숙이 밴 유대교적 전통과 사상과 관습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독교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신약성서에 충분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다.

## 2) 구원론적 관점

신약성서에 드러난 제도적 관점에서는 여성 목사의 당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 이것은 환원이상의 두 가지 가운데 한 가지인 ‘진리,’ ‘신약성서교회,’ ‘사도전통’ 또는 ‘옛 질서’에로의 환원을 외치는 호소에 여성 목사가 설 자리를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원론적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 독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이 환원이상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 운동,’ ‘연합’ 혹은 ‘일치’를 외치는 호소와 맞물려 여성목사의 설 자리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 바울의 사상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는 것이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이란 것이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에베소 3장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9절)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8절)이라고까지 하였다. 구원에 차별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목회사역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환원운동에서 ‘그리스도인 운동,’ ‘연합,’ 혹은 ‘일치’ 운동은 분열의 벽,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을 허물고 ‘그리스도인’(Christian)이라는 큰 용광로에서 녹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분열을 획책하는 인종의 벽, 남녀의 벽, 신분의 벽, 계급의 벽은 허물어져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롭게,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대로,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성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일컫는 시온소를 두고 한 말이다. 히브리서 6장 19-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고 앞서 지성소로 들어가셨고, 성도의 희망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면,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고 하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지상 성막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상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가로 막는 성막휘장은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모든 인위적인 장벽을 상징한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신 것은 ‘휘장’이란 장벽이 허물어진 것을 뜻한다고 말한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벽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번제단과 물두

명이 놓인 '제사장의 딸'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벽'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벽'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벽'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벽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딸의 장벽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벽들이다. 이 모든 벽,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막휘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써 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이방인들인 우리조차도 아무런 거리낌이나 방해물 없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 더 이상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차별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신분이 있고, 계급이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여성 목사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노소 민족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만인 제사장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남성만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생각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만인제사장설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을 감히 누가 막겠는가?

### 3. 교회사적 관점

기독교시대에서도 종교적인 성직이 여성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성직자들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성전시대의 제사장급인 사제(장로)들과 레위인급인 부제(또는 보제=집사)를 두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장로(사제, 감독, 주교)들과 집사(부제, 보제)들은 모두 사제들(목회자들)이다. 가톨릭과 정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목사)나 집사가 없다. 여성 장로와 집사를 두지 않는 유대교의 전통이 기독교에서도 그대로 답습된 것이다.

오늘날 개신교와 유대교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큰 특징은 '목사'와 '랍비'가 장로들의 목양(목사)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목사'는 16세기 마르틴 부처가 '사제'(장로)를 바꿔 부른데서 생긴 것이고, 신구약성서시대의 랍비는 목회자가 아니었으나(성서시대에는 회당에 목회자가 아예 없었음), 오늘날의 랍비는 목회자이다. 성공회나 루터교회와 같이 전통교회의 틀이 남아 있는 일부 개신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오늘날의 대다수 개신교회들의 '목사' 또는 '목회자,' 그리고 유대교회에서의 '랍비'는 성전시대의 '제사장'과 전통교회들의 '장로사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능을 갖게 되었다.

개신교회와 유대교회의 예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예배가 더 이상 제사예배가 아니란 점이다. 유대교회의 예배는 그 자체가 성전예배를 대신하는 '기도회'모임이다. 개신교회의 주의 만찬도 가톨릭이 행하는 '제사(미사)'가 아니라 '기념'과 '회상'의 성례이기 때문에 '사제'란 개념이 전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성전시대의 제사장이란 개념과 기독교회의 목사와 유대교회의 랍비는 연결성이 없다. 더욱이 종교개혁의 큰 특징은 '만인 제사장설'이다. '만인' 속에는 남녀노소가 다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사는 제사장적 성직개념보다는 기능적인 전문직의 개념이 강하다. 여기서 기능적 전문직이란 사도들이 언급하였듯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것"(행 6:4)을 말한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이 특정 사역에 여성들이 제외되어야 할 어떤 특별한 사유를 현대사회에서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목사’ 또는 ‘사제’를 함축하는 ‘Reverend,’ ‘Pastor’와 같은 용어를 쓰지 않기로 처음부터 작정하였고(발톤 스톤, “스프링필드장로회의 유언서”), ‘집사’ 또는 ‘일군(섬기는 자)’를 뜻하는 ‘Minister’를 사용하고 있다. 회중주의를 표방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는 일군이 지 ‘사제’가 아니다. 여성 목사안수를 크게 문제 삼는 데는 목사안수를 사제직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은 아닐까?

초기 지역교회들의 직책에는 유대교 회당에서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가 있었다. 복수의 장로들과 집사들이 그것들이다. 장로들은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의 불박이 목회자들이었고, 집사들은 봉사자들이었다. 그 밖의 사도들, 교사들, 전도자들, 예언자들은 떠돌이(순회) 목회자들이었다. 떠돌이 목회자들 시대가 끝난 2세기 초부터는 지역교회들이 불박이 목회자들인 장로들의 지도 아래 전적으로 놓이게 되었다.

초대 장로들 가운데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행 15:1-6, 22-23; 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바울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였다고 했는데(행 14:23),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는 유래가 된 것이다.

이들 장로들의 임무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속에 잘 나타나 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행 20:2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 할 것이니라”(딤후 5:17). 이 두 구절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장로의 임무는 양무리를 치고 감독하는 목양과 치리와 교육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발전된 것이 사제와 부제(보제)직이다. 역사상에 나타난 장로에 관한 기록이나 변천을 보면, 장로 직책은 평신도의 직책이 아닌 사제 계급으로 발전된 사실을 살필 수 있다. 천주교회, 영국 성공회, 감독교회, 미국 감리교회, 독일 개신교회들에서 장로는 사제 계급인 정회원 목사를 말한다. 사제(priest)라는 말도 장로(presbyter)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장로사제의 발달은 기독교예배가 '미사' 곧 제사예배로 발전된 때문이었다. '미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한다. 이것을 '피 없는 희생제사'라고 말한다. 초기 기독교에서 제사예배의 발달은, 피의 희생 제사를 바치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없는 기독교예배를 무신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주교의 권한이 커진 4세기 이후 기독교예배는 이방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축성에 의한 성체변화의 신학과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의 개념화가 이뤄졌다. 이것이 불박이 목회자였던 장로가 사제가 된 배경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사도들, 교사들, 전도자들, 예언자들과 같은 떠돌이 목회자들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이들이 사라진 이후에는 지역교회들이 전적으로 지역교회 장로들에 의해서 생존되어 왔으며, 2세기 초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장로회의 당회장 격인 감독(혹은 주교, 목사에 해당됨)의 위치에서면서 오늘날의 목사 개념의 목회자로 변천되어 왔다. '장로사제'를 '목사'란 말로 바꾼 사람은 종교 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1491-1551)였다. 그는 또 '미사'(제사예배)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주의 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부터 개신교회에는 제단이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제단이 없다는 것은 사제(제사장)가 없다는 뜻이다. 사제가 없다는 뜻은 여

성 목사가 여성 제사장을 계명으로 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계명(토라)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남녀노소신분계급종족의 벽을 허물어 버리셨다.

교회사는 우리에게 목사가 사제 계급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혀 준다.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이후 한 때 사제였던 장로 직분을 평신도 직분의 교회지도자로 바꿔놓았고, 떠돌이 목회자의 바통을 이어받은 목사를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전념하는 전문인으로 바꿔놓았다. 목사가 더 이상 사제(성전 예배 때의 제사장)직급이 아니란 점을 기억해 마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개신교역사에서 여성이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있겠는가?

사도전통을 따라 옛 질서를 회복하려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바울 사도의 지시를 거역하기가 여간 꺾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바울의 이 언급이 무질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 고린도교회에 “주의 명령”(고전 14:37)으로 지시한 내용이었지만, 유대교적 전통에 입각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추이(推移)적 관점

##### 1) 19세기

19세기라 함은 스톤-캠벨운동이 시작된 1800년대, 즉 스톤-캠벨운동이 세 개의 파로 분열되기 이전을 말한다. 이 시기에 이미 스톤-캠벨운동에서는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목사들을 배출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 다른 교단들, 예를 들면,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등에서는 여성목사가 배출되지 않고 있었다.

스톤-캠벨운동에서 교회에서의 여성의 고유한 지위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진 것은 1890년대 초였다. 이때 다른 제반 문제들, 예를 들면, 적절한 성서해석과 적용의 문제, 교회정치조직



에서의 문화의 역할, 목회자(evangelists) 수급의 심각한 필요, 설교자와 목회자의 권위적 기능에 대한 문제들이 함께 논의되었고, 찬반(贊反)에 관한 토론이 1891년부터 1893까지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지에 집중적으로 실렸다.

### (1) 목회직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견해

알렉산더 캠벨은 여성목사 안수를 좋아하지 않았고, 바울의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벨은 목회와 목사직에 관한 성격을 사제직 혹은 성직자(clergy)와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캠벨은 『크리스천 뱍티스트』(*Christian Baptist*)를 발행한 1820년대 동안 '성직자'(clergy)에 대항하는 전쟁을 치렀다. 캠벨은 감독들을 장로들 혹은 목사들과 동일개념으로 보면서 감독의 의무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고, 회중의 구성원들을 목양하며, 징계문제들(회중의 도덕적 감독)에서 통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캠벨은 감독의 독특한 의무들에 관한 그의 설명에서 '설교하다'란 말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캠벨에게 있어서, 설교는 기독교 복음을 단순히 나누는 것이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였다. 성구를 해석하거나 기독교 믿음(소위 '설교'라 불리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캠벨이 감독의 의무로 이해한 가르치는 것이었다. 주의 만찬의 집례는 회중의 모든 집회들에서 '사회를 보는' 것에 포함되어졌다. 캠벨에게 있어서 설교는 남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와 장로들이 할 임무로 보면서 주의 만찬의 집례자를 사회자의 개념으로 보았다.<sup>2)</sup>

실제로 미국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은 대부분 주의 만찬의 집례를 장로와 집사들이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는 고용 목회자들이 아예

2) D. Newell Williams, Paul M. Blowers, and Douglas A. Foster,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주의 만찬 집례에서 배제되고 있다. 회중 가운데 침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의 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

캠벨에게 있어서 감독들과 장로들이 회중(개교회)의 불박이 목회자였다면, 순회 목회자였던 전도자들(evangelists)은 회중이나 회중들의 단체의 감독아래서 그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들로부터 파송되어 복음을 선포하고, 침례를 베풀며, 회중들을 조직하고, 훈련(징계)을 관장하며, 회중들이 장로들을 뽑고, 전도자의 감독 없이도 기능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또 캠벨은 감독들과 장로들이 연소하거나 초심자들이어서는 안 된다고 본 반면에, 사도들을 모델로 삼았던 전도자들은 회중이나 회중들의 감독아래 있으므로 연소한 자도 가능하다고 보았다(딤후전 4:12).<sup>3)</sup>

알렉산더 캠벨은 ‘성직자’(clergy)에 대항하여 전쟁을 치렀던 만인제사장설의 주창자였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회와 능력이 닿는 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어느 그리스도인이나 “상황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모든 사람들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권리로써 설교하고, 침례를 베풀며, 주의 만찬을 베풀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감독직에 오를 자격자가 아무도 없는 회중들 속에서는 “가장 재능 있고, 가장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임시로 선출되어 어린 양떼의 공중예배와 덕 세움과 훈련(징계)을 관장해야 했다”고 제시하였다. 캠벨은 주의 만찬의 매주 시행의 의무를 논하면서 감독의 자격들에 적합한 회원들이 아무도 없을 때 “두 명의 선임회원들”을 뽑아서 그들의 모임들에서 사회를 보고 주의 만찬을 베풀게 했던 한 회중(교회)의 예배를 추천한 바가 있다.<sup>4)</sup>

캠벨이 이해한 회중의 목회자는 회중 내에서 선출된 다수 감독과 장로들이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목회의 일을 수행할 감

3) *Ibid*

4) *Ibid*

독들이나 장로들이 거의 없었다. 있다손 치더라도 그들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중들은 그들 가운데 상주하면서 목회 기능들을 전담할 전도자들을 1840년대부터 초빙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스톤-캠벨운동의 리더십에 고용(유급) 목사 혹은 가르치는 목사가 등장하게 되었다.<sup>5)</sup>

그러나 정착하여 보수를 받는 전문 목회자의 등장은 스톤-캠벨 운동의 목회 체제에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왔다. 새로운 전문 목회를 수용하기 위한 기존 목회 체제를 조정하는 것에 관해서 두 개의 상방된 견해들이 동시에 발전했다. 논의가 1890년대에 뜨겁게 달아올랐고, 지속되었다. 맥가비(J. W. McGarvey)와 윌키즈(L. B. Wilkes)가 목회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된 전도자였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장로들의 부름을 받고 그들의 엄격한 감독아래서 섬겼던 정착 전도자들이었다. 전문 목회자는 장로들의 감시와 지배에 분명히 복종하였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입장을 대변한다.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와 게리슨(J. H. Garrison)과 같은 영향력 있는 저널리스트들에 의해서 지지된 반대의 견해는 목회자가 그 자신이 장로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목회자는 주도적인 장로요, 동등한 사람들 가운데서 첫째였다. 장로들은 조언을 하거나 주의 만찬 상을 섬기고 목양을 하곤 하였다. 목회자는 장로로서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을 수행하곤 하였다. 이 견해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과 그리스도인의 교회(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의 입장을 대변한다.<Peter M. Morgan, "Elders, Eldership,"<sup>6)</sup>

## (2) '목회자'(섬기는 자, Minister) 체제의 확립

5) *Ibid*

6) *Ibid*

목회직들에 대한 캠벨의 이해는, 스톤-캠벨운동에 끼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곧 바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부분의 회중들에서 목사직에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다수는 고사하고 한 사람도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장로들이 선출되고 장립(안수)되었지만, 그들은 종종 거의 가르치지 않았고, 그들이 행한 노력들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가르치는 목회(teaching ministry)에 대한 갈망에 응답해서 회중들은 그들 가운데 상주하면서 목회 기능들을 전담할 전도자들을 1840년대에 초빙하기 시작하였고, 때로는 젊은 대학졸업생들이 초빙되기도 하였다.

회중 밖에서 ‘상주 설교가(resident preacher)를 초빙하는 것은 캠벨의 견해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캠벨의 견해는 회중의 리더십은 회중의 멤버십 내에서 선출되는 것이었고, 또 그것은 남북전쟁이후 시대에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의 지도자들이 된 그 운동의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물음들을 야기했다. 톨버트 팬닝(Tolbert Fanning)은 이 진전이 그 중요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의 전도자의 직책을 빼앗을 것이고, 고용 목사가 그 구성원 자신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활동들을 수행할 경향을 갖기 때문에 회중 내의 재능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믿었다. 팬닝의 제자,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은 급여를 주는 목사들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회중 밖에서 초빙하는 것만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장로직은 그것이 받아야 마땅한 만큼 영광을 받지도, 존경을 받지도, 지지를 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 악(惡)은 순회 목사들로 장로들을 밀어내는 것으로는 결단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고 그는 썼다. 1905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설교자요, 전도자이며, 선교사이다.”는 말도 했다.

새 진전을 받아드렸던 그 운동의 보다 더 큰 부류에게는 (적들의 비판대로) “한 사람 체제”(one man system)가 캠벨 체제에 대한 진전은 아니고, 교회들의 특성에 의해서 필요가 생긴

실천적 한계였다.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는 다음과 같은 글로써 많은 사람들을 대변한다.

많은 교회들의 불완전한 상태 속에서 설교자와 교사와 치리에 있어서 장로들과의 협력자로 한 사람(man)을 고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로 정당화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자. 성서가 의도하는 것과 같은, 이를테면, 그들의 업무가 가르치고 설교하고 치리하는 것인 다수 장로들 혹은 감독들, 곧 힘(세력)의 조직을 좀 더 완전에 도달하게 하는 것이 모든 교회들의 목적과 야망이 되어야 한다. -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수고를 쪼개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가장 잘 유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봉사들에 보답하였다... 세상일들에 빠져 있고, 교회들을 감독할 수 있지만, 이따금씩 할 수 있는 장로들은 신약성서에 기술된 장로들이 아니다.

한 회중이 회중 밖에서 상주할 설교자를 초빙하는 것이 정당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이 그 새로운 관행이 만든 유일한 문제만은 아니었다. 그 새로운 체제를 수용했던 자들에게는 다른 문제들도 불쑥 나타났다. 무엇이 목회이며, 이 보직을 채운 사람의 직책이었는가? 그 같은 사람을 장로로 보아야했는가, 혹은 전도자로 보아야했는가? 그 보직을 가진 사람의 나이가 쟁점의 대상이 되었는가? 제자들은(스톤-캠벨운동의 구성원들) 이 쟁점을 19세기의 삼분의 일 후반기 동안 토론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젊은 사람을 전도자로 봐야하며, 장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존 W. 맥가비(John W. McGarvey)였다. 맥가비는 스톤-캠벨운동의 초기 신학교인 켄터키 주 렉싱턴 소재 성서대학(The College of the Bible)의 주도적인 인물이었다. 맥가비에게 전도자의 일은 한 가지를 제외하면 감독의 일과 동일한 것이었다. 전도자들과 감독들 모두에게 공통의 일이었던 설교와 가르침에 더해서 감독들은 교회를 치리(교회에서 징계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도자들은 교회를 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고, 교회의 장로들 혹은 감독들의 권위아래 있었다. 맥가비는 성서가 젊은 사람이 전도자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만, 장로는 완숙한 사람이어야 할 것

을 요구한다면서 장로와 전도자의 직책들 사이의 구별을 설명하였다.

그 새로운 보직을 가진 사람은 나이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례들에서 장로로 간주돼야한다는 견해를 앞장서서 주창한 사람은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의 편집자인 아이작 에레트(Isaac Errett)였다. 1867년 그는 “그들 한가운데서 한 교회로부터 설교자와 교사로 선택된 사람은 누구라도 교회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한 사람으로 확실히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썼다. 젊은 사람은 나이 한 가지 때문에 장로직에 부적합하다는 반대에 대한 응답에서 에레트는 ‘장로’라는 말이 한 때는 ‘나이가 든 사람’을 의미했지만, 직무에 사용되어왔고, 지금은 단지 가르치고 징계를 관장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지적한다고 주장하였다. 에레트는 일부 젊은 설교자들이 당분간 장로들의 지도에 순종해야한다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장로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자마자 장로직에 안수되어야 했다. 에레트에게 그 같은 사람을 부르는 적절한 호칭은 ‘목사’(장로, pastor)였다. 비록 에레트가 회중의 설교자를 ‘목사’(장로, pastor)로 종종 언급하였지만, 그는 이 호칭을 장로들과 다른 별개의 직책을 지정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 ‘목사’(장로, pastor)는 목회사역에 전무(專務)하는 장로였다. 다수 장로들이나 감독들의 필요성을 강조한 립스콕과 맥가비에 대조적으로 에레트는 만약 ‘목사’(장로, pastor)가 목회직을 갖기 위한 자격을 갖춘 회중의 유일한 구성원이었다면, 성서는 교회가 그 한 사람 목사(장로, pastor)에 의해서만 치리되고 교육되어야 할 것을 허락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스톤-캠벨운동의 교회들은 회중 내의 목회 책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회중 밖에서 초빙된 사람이 전도자였는지 혹은 장로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코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같은 보직을 취한 사람을 ‘설교자’(preacher) 혹은 ‘섬기는 자’(minister)로 언급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맥가비는 ‘섬기는 자’(minister)란 말을 좋아하였다. 그 말의 문자적인

뜻이 종(servant)이었고, 치리자(ruler)가 아니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맥가비 견해는 그 운동 속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그 영향력이 주의 만찬의 집례를 회중의 회원권 내에서 뽑힌 장로들이 담당하는 20세기에까지 이르렀다. 목사(섬기는 자)는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었지만, 주의 만찬의 집례, 곧 역사적으로 감독이 떠맡아온 목회적 역할에서 배제되었다.

설교자와 목사(섬기는 자)의 등장은 교회 모든 임원들의 장립에서 안수를 경시하는 경향이 뒤따랐다. 이 진전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펜들톤(W. K. Pendleton)에 의해서 이미 1850년에 안수가 장립에 필요치 않다는 견해로 분명하게 밝혀졌다. 이 견해는 또 맥가비(J. W. McGarvey)에 의해서 “안수(장립)하는”(ordain) 것은 단지 “지명하는”(appoint) 것을 의미하였고, 비록 이것이 신약성서에서 기도와 금식 후 이뤄지는 안수에 의해서 시행되어졌지만, 그것은 단순히 임직하는 것이었고, 생략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창되어졌다.<sup>7)</sup>

참고로 목사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은 1964년 “주(州) 또는 지역위원회(state or area Committee) 혹은 목회에 관한 위원회(Commission on Ministry)의 지도아래서 거행되어야하는” 것으로 보았고, 1971년 승인된 총회문서에서는 목사 안수 후보자들이 소속 교회를 포함한 제자와 소속 회중 혹은 회중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역(지방회)의 대표들, 가능하다면, 총회의 대표들을 포함한 추천 회중 혹은 추천 회중들이 안수식에 동참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분명한 것은 안수(장립)가 “지역(지방회)의 승인권과 지도권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언급할 필요가 생긴다. 첫째, 한 회중 안에서 임명되는 감독과 장로와는 달리 목사는 회중 밖에서 부름을 받고 목회기능들을 전임하는 새로운 직책, 곧 섬기는 자(minister)의 직책을 가진 자로 보았다. 따라서 목사의 직책은 한 회중의

7) D. Newell Williams, Paul M. Blowers, and Douglas A. Foster, "Ministry," *Ibid*

직책이 아니며, 캠벨이 말한 장로나 전도자가 아니라고 본다. 목사는 처음에는 한 회중을 섬기지만, 그 다음에는 다른 회중을 섬기기 때문에 목사는 한 회중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the whole church, 총회)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안수는 한 회중의 장로권아래 있지 않고, 지역(지방회)의 승인권과 지도권아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8)</sup> 둘째, 목사의 직책에 대한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언급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와 5장 17절에 언급된 “잘 다스리는 장로들”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한 회중 안에서 임명되는 감독과 장로들에 관한 말씀이 되고, 1840년대 이후 회중 밖에서 회중으로부터 초빙된 전도자 또는 목사(섬기는 자)에 관한 직접적인 말씀은 아닌 게 된다. 따라서 목사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게 됨으로 제자들에게는 여성안수가 문제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목사가 한 회중의 장로권아래 있지 않고, 지역(지방회)의 승인권과 지도권아래 있다고 보는 견해에 반대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회중 밖에서 초빙되는 목사는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의 표준관행은 회중의 회원들이 신입 목사, 신입 장로들과 집사들을 선출하며, 그들을 안수하는 것은 장로들의 권한 아래 있다. 그러나 설교 목사들이 초빙하는 회중에 의해서 항상 안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대개는 모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면 다른 회중들이 다시 안수하지 않고 이를 인정해 준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공식적인 목회계급(order)을 결코 인정한 일이 없지만, 한 가지 곧 성직자들과 평신도를 엄격하게 구별하는 것만큼은 온몸을 던져서 거부하였다.<sup>9)</sup>

이상에서 보듯이 회중 내의 감독과 장로들에게 주어진 회중

8) *Ibid*

9) *Ibid*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의 문제들을 제외한 나머지 목회적 섬김들, 곧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베풀고 주의 만찬을 집행하는 문제들에 있어서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는 만인제사장설의 입장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 것”(행 6:4)이 목회자의 일이라면, 여성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물론 목사가 감독이요 장로라는 입장에서는 회중 내의 리더십의 문제, 곧 감독과 목양과 치리(징계)권이 목사에게도 주어지지만, 감독이나 장로가 더 이상 사제나 성직(clergy)이 아니라면 입장에서 보면, 회중 내에서 여성의 리더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목사가 장로들의 감시와 지배아래 있는 고용 전도자이든, 그 자신이 주도적인 장로이든, 19세기 후반이후 목사는 유급 목회자이고, 전담 목회자이며, 전문 목회자이고, 고용된 목회자이다. 게다가 미국의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목사의 호칭이 ‘섬기는 자’(minister)란 말로 자리를 잡았고, 캠벨의 사위로서, 베다니 대학의 학장을 지냈던 펜들톤과 진보신학에 맞서 싸운 보수신학의 보류였던 맥가비와 같은 석학들이 목사장립의 의미를 엄격으로 보았으며, 안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여성안수문제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미국의 스톤-캠벨운동권에서 주의 만찬의 집행권과 치리권이 장로들의 권한아래 놓여 있다는 점이다. 목사는 그야말로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침례 베풀고, 심방하는 일로 성도들을 섬기면 되는 것이다. 이 일에 나이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성에게만 제한을 둘 뿐이다.

### (3) 19세기 여성 목회자들

이런 제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체제의 논의가 활발하던 19세기에 이미 스톤-캠벨운동권에서는 안수 받은 여성목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바버라 켈리슨(Barbara Kellison)는 아이오와 협의체 소속으로써 1862년에 출판된 팸플릿에서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기술하였다. 마린다 레멀트(Marinda R. Lemert)는 『아포스톨릭 가이드』(Apostolic Guide)지의 기고가로서 잘 알려진 여성목사 안수 주창자였다. 메리 그라프트(Mary T. Graft), 메리 모리슨(Mary Morrison), 메리 오글(Mary Ogle)이 1815-1817년에 펜실베이니아에서 교회를 세웠다. 1828년 토마스 캠벨의 방문을 받고난 다음 교회이름을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정하였다. 메리 스톡딜(Mary Stogdill)은 침례주례와 목사후보생 모집가로서 활동하였고, 1821년 캐나다 온타리오에 크리스천 협의회가 세워지는데 공헌하였다.

엘렌 그란트 거스틴(Ellen Grant Gustin)는 1873년 마이애미 크리스천 협의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에미 프랭크(Emi B. Frank)는 1870년대에 인디애나에서, 메리사 가렐 터렐(Melissa Garrett Terrell)는 1867년 오하이오에서, 로라 갈스트(Laura D. Garst), 메리 아담스(Mary L. Adams), 조세핀 스미스(Josephine W. Smith)는 1883년 선교사역을 위해서 선교사총회(General Missionary Society)로부터 각각 목사안수를 받았다.

클라라 할 밥코크(Clara Hale Babcock)는 1888 혹은 1889년에, 제시 콜만 몬서(Jessie Coleman Monser)는 1891년에, 사디 맥코이 크랭크(Sadie McCoy Crank)는 1892년에, 베르타 메이슨 풀러(Bertha Mason Fuller)는 1896년에, 클라라 에스피 헤이젤리그(Clara Espy Hazelrigg)는 1897년에 각각 목사안수를 받았다.<sup>10)</sup>

## 2) 20세기

### (1)그리스도의 제자들/그리스도인의 교회

‘그리스도의 제자들/그리스도인의 교회’는 진보노선을 걷고

10) Debra B. Hull, "Women in Ministry: Nineteenth Centu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있다. 여성목사 안수에 가장 적극적이며, 미국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취임식 뒤에 열린 전통적인 국가 기도회(National Prayer Service) 때에 설교를 맡은 목사가 바로 제자회의 총회장인 샤론 와킨스(Sharon Watkins) 여성 목사였다.

20세기 초반인 1931년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에는 365명의 여성목회자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85명이 목사들이었다. 1952년에는 안수 받은 여성목사가 298명으로 늘어났다. 이 가운데 39명이 담임목사로 조사에서(United Church Women survey) 드러났다. 1972년에는 목사안수를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1퍼센트 미만이 여성이었으나 1990년까지 15퍼센트로 올라섰고, 9퍼센트(1984년에는 약 4퍼센트)가 담임목사 또는 단독목사로 조사되었으며, 39퍼센트가 부목사(1984년에는 약 33퍼센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목사들 가운데 22퍼센트가 여성으로 채워졌다.<sup>11)</sup>

1984년 통계에 따르면, 여성담임목사 또는 단독목사가 112명(전체의 4.2퍼센트)이었고, 부목사가 120명(전체의 32.8퍼센트)이었으며, 안수 받은 여성이 595명(전체의 10퍼센트)이었다. 1980년대 초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여성이 전체 학생의 삼분의 일을 차지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수가 절반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여성목회자의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D. Newell Williams, Paul M. Blowers, and Douglas A. Foster, "Ministerial Training," *Ibid*> 신학대학원 등록 여성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비단 제자회뿐만 아니라, 타 교단들의 대학원들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 (2)그리스도의 교회들

예배에서 악기 쓰는 것을 금(禁)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1) Debra B. Hull, "Women in Ministry: Twentieth Century in the 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Ibid*

근본주의 노선을 견고 있다. 이들 교회 소속 여성들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활동을 보였던 인물은 셀레나 무어 홀먼(Silena Moore Holman, 1850-1915)으로서 '여성 크리스천 절제 연대'(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그녀는 종종 『가스펠 애드보게이트』(*Gospel Advocate*)지에 기사를 실어 여성의 지도자 역할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러나 1906년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독립파와 제자회 포함)과 갈라선 이후로 1960년대까지는 점진적으로 여성들의 대중적 지도자 역할이 이들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과 같은 지도자들이 교회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다. 립스콤은 『가스펠 애드보게이트』(*Gospel Advocate*)지에서 바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성을 영멸(永滅)으로 인도할 것이라고까지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이유들로는 미국 남부지역을 휩쓴 강력한 근본주의 사상, 여성에 관한 성구들에 대한 알렉산더 캠벨의 문자적인 해석학적 접근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들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s)을 겪게 되었다. 1960년대 후반이후부터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는 캠퍼스 사역자로 여성들이 고용되었으나 이들을 '목회자'로 부르지는 않고, '여성 카운슬러'로 불렀다. 이후 여성들은 교육목회,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상담목회, 구제목회 등에 고용되었고, 종종 '목회자'(ministers)로 불렸다. 참고로 유악기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에서는 여성사역자들을 '디렉터'(directors)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목회자'(ministers)로 고쳐 부르는 추세이다.

1989년 '브루클린 그리스도의 교회'(Brookline, Massachusetts)는 교회사역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대중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후보뒀면에 부착하였다. 이 교회는 1987년에

두 명의 강단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여성을 고용한 바 있다. 최근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측면의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로 남편과 부인을 한 팀으로 고용하였고, '베링 드라이브 그리스도의 교회'(Bering Drive Church of Christ in Houston)와 '스탬포드 그리스도의 교회'(the Stamford Church of Christ in Connecticut)와 같은 다른 교회들도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통계자료가 무악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공개토론과 세미나, 설교와 강의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고, 여성들의 고용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2)</sup>

### (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무악기 독립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복음주의이다. 몇 개의 통계자료들이 존재함으로 자료들을 중심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먼저,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독립파 그리스도인의 교회들 가운데 약 10퍼센트가 여성 집사들을 두고 있었고, 그 수는 약 8천 명 가량이며,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100여명의 여성 장로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약 38퍼센트의 교회들이 960여명의 여성 목회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여성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다.<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pp. 8-9.>

12) Kathy J. Pulley, "Women in Ministry: Twentieth Century in the Churches of Christ," *Ibid*

1997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1997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목사 또는 협력목사가 2명, 부목사가 17명, 교육목사(디렉터)가 29명, 청소년부목사(디렉터)가 30명, 유년부목사(디렉터)가 123명, 상담목사 7명, 캠퍼스목사 2명, 음악목사(디렉터)가 71명, 행정목사 12명, 여성전담목사 8명, 노인전담목사 5명, 대학의 교수목사 또는 행정목사 79명, 기타 18명 도합 403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2001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목사 또는 협력목사가 1명, 부목사가 56명, 교육목사(디렉터)가 31명, 청소년부목사(디렉터)가 87명, 유년부목사(디렉터)가 258명, 상담목사 14명, 캠퍼스목사 17명, 음악목사(디렉터)가 147명, 행정목사 1명, 여성전담목사 34명, 노인전담목사 8명, 대학의 교수목사 및 행정목사 154명, 기타 71명 도합 879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6개주에서 11 퍼센트의 교회들이 적어도 한 명이상의 여성목회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자료들이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는 여성목사안수에 대한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입장이 변하고 있는 추세란 점이다.<sup>13)</sup>

## 맺는 말

이상으로 여성 목사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현대사회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고, 또 그 추세를 빗겨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근본주의 노선을 걷는 몇몇 교단들을 제외한 복음주의 노선을 걷는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는 이미 여성목사안수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사는 더 이상 사제(제사장)가 아니며, 제단도 없고, 기독교 예배가 제사예배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매주 주의 만찬

13)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Twentieth Century in the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Ibid*

---

을 성서적인 사도전통으로 알고 시행하고는 있지만, 가톨릭교회처럼 '제사예배'로 하지 않고, 기념과 회상 또는 기원과 감사와 친교로 하고 있다. 그 점에서 가톨릭이나 정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일꾼들이다. 여기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장벽을 허무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사제(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나아갈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 하물며 주님의 일꾼이 되는 일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 제7장 개신교 목사직과 여성 목사직의 근거들

여성 목사가 합당한지, 성서나 역사에서 그 당위성이 확보되는지를 개신교 예배의 성격과 목사직의 성격을 밝힘으로써 정리해 보려고 한다.

### 1. 제도적 관점

제사 예배를 드렸던 유대교 성전(성막)에 여성 사제는 없었다. 토라의 613개 계명들 속에 여성 성직을 지시한 계명이 없기 때문이다.

기도회로 모이는 유대교 회당에도 여성 성직자는 없다. 유대교 회당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여성과 13세 이하의 아이들은 회원으로 관주되지 않는다. 유대교 정통주의에서는 오늘날까지도 여성과 13세 이하의 아이들이 본당에 동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또 여성이 회당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기도회에서 베라코트(특히 쉘모네 에스레이)를 암송하는 것과 토라를 낭독하는 것을 계명으로 보지 않고 자발적인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여성은 기도회를 인도할 수 없다. 회당예배는 성전에서 봉헌되었던 제사예배의 횡수만큼 갖는 기도회(베라코트의 암송)로써 기본적으로 유대인 남성들(민안)의 모임이다.

유대교에서는 여성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남성들의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기도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 제한을 차별로 보지 않고, 보상으로 본다.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상반절)는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도록 한 것은 토라에 실린 613개의 계명에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계명이 없다는 유대교인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하반절)라고 한 말씀에서 추론할 수 있다.

제물을 바치지 않았던 초대교회도 목사들(장로, 감독)이 모두 남성이었다. 그렇다고 여성 지도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사사시대에 드보라가 있었듯이,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롬 13:3)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일군이었고, 바울의 추천을 받았던 뵤뵤(롬 16:1)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이었으며, 루디아는 바울이 의지했던 빌립보 교회의 큰 일군이였다.

## 2. 구원론의 관점

성서에는 여성 사제나 여성 목사들(장로, 감독)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다. 그러나 신약성서는 목사의 일에 남녀차별이 없음을 구약의 제사예배나 회당예배와는 다른 성격의 기독교 예배를 밝혀 줌으로써 암시하고 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서신서들에서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 한 몸이다(고전 12:13).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종족의 차별이 없다(롬 3:22, 10:12, 골 3:11). 에베소 3장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9절)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8절)이라고까지 언급하였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의하면, 남녀노소무론하고 누구나 “궁핍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여기서 ‘은혜의 보좌’란 성막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일컫는 시온소를 말한다. 히브리서 6장 19-20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휘장을 찢고 앞서 지성소로 들

어가셨고, 성도의 희망도 예수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히브리서 10장 19-20절을 보면,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이요,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고 하였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을 지상 성막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명한 이유는 지상 성막이 하나님의 지시로 지어진 하늘 성막의 모형과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네 개의 뜰과 두 개의 성소가 다섯 개의 벽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남녀노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크고 넓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여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유대인 남성의 뜰,’ 이 벽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인 ‘제사장의 뜰’ 또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이 놓인 ‘성소,’ 다시 휘장을 사이에 두고 그 안쪽에 법궤가 놓인 ‘지성소’가 있었다. 이 유대교 성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인종의 벽’이 있었고, 유대인 여성들과 남성들 사이에 ‘남녀의 벽’이 있었으며, 유대인 남성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신분의 벽’이 있었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사이에 ‘계급의 벽’이 있었다. 그런데 원래 벽은 하나님의 영역인 성막 안에만 존재했던 것이다. 뜰의 장벽들은 다 유대교가 만들어낸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벽들이었다. 이 모든 벽, 심지어 신성의 상징인 성막휘장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육신을 깨뜨리심으로써 다 허물어졌다. 따라서 이제는 민족, 남녀, 신분, 계급의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직자들을 통하지 않고) 지성소 법궤 앞 시은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이로써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하루 두어 차례 할 수 있었던 일을 남녀노소, 횡수, 시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다.

### 3. 교회사적 관점

역사는 초대교회의 목사직(장로, 감독)이 어떻게 사제직(부제/보제, 사제, 주교)으로 변천되었는지, 또 사제직이 개신교의 목사직으로 변천되었는가를 보여줄 뿐 아니라, 개신교 목사직의 성격까지를 밝혀준다. 개신교 목사직은 세 가지 가능한 역사적 근거를 갖는다.

첫째, 1-2세기경에 회중 내에서 선출된 불박이 장로들에 근거한다. 장로들은 목양권과 감독권을 갖는 회중내의 목회자들이었고(행 20:28, 딤편 5:17, 약 5:14), 그들을 장립한 것은 순회목회자들이었다(행 14:23, 딤편 1:5). 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다(딤편 3:2, 12, 딤편 1:6).

둘째, 1-2세기경에 장로회로부터 안수를 받고 파송된 순회 전도자들에 근거한다(딤편 4:14. 행 13:3 참고).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장로를 뽑아 장립하였으나 한 곳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떠돌이 목회자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울을 포함해서 다수였다(고전 7:8).

셋째, 19세기경에 시작된 전혀 새로운 보직, 즉 '만인 사제들'에 속하지만, 전문가로 훈련받고 회중으로부터 초빙되어 풀타임 사역하는 전담 목회자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1840년대 미국의 변방교회들에서 시행되었다.

이들 세 가지 근거들 가운데 회중 내에서 선출된 불박이 장로 목회자들의 경우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순회 전도자들의 경우도 2세기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개신교 목사직은 근현대 회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보직, 즉 '만인 사제들'에 속하면서 전문가로 훈련받고 초빙되어 풀타임 사역하는 유급 전담 목회자라 할 수 있다.

회중 내의 장로 목사직은 4세기경까지 지속되다가 4세기 말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된 후부터는 사제계급으로 발전되

었고, 주교좌교회들을 중심으로 한 교권화와 중앙집권화가 이뤄진 다음부터는 사제들이 교권의 지배를 받아 상부지시를 따르는 순회 사제들로 바뀌게 되었다.

장로 사제직의 발달은 기독교예배가 '미사' 곧 제사예배로 발전된 때문이었다. '미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말한다. 이것을 '피 없는 희생제사'라고 말한다. 초기 기독교에서 제사예배의 발달은, 피의 희생 제사를 바치고 있던 이방인들이 성전도 없고 희생물도 없는 기독교예배를 무신론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뤄졌다.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주교의 권한이 커진 4세기 이후 기독교예배는 이방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빠른 속도로 축성에 의한 성체변화신학(화체설)과 제단과 제물과 제사장의 개념화가 이뤄졌다. 이것이 불박이 목회자였던 장로가 사제가 된 배경이다. 사제(priest)라는 말도 장로(presbyter)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16세기 종교개혁이후 개신 교회들은 대부분 국가종교로써 여전히 장로 사제들의 지도아래 있었고, 종교 개혁가 마르틴 부처(Martin Bucer/1491-1551)가 '장로 사제'를 '목사'로, '미사'(제사예배)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주의 만찬상'으로 바꿔놓긴 했지만, 장로 사제가 아닌 전문직 목사는 역사적으로 훨씬 후대에 등장하였다. 오늘날의 전문직 목사와 평신도 장로제도는 오로지 개신교에서만 볼 수 있는 제도이다.

#### 4. 여성 목사직의 당위성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여성 목사직은 몇 가지 가능한 근거들을 갖게 된다.

첫째, 성서에는 여성 목사가 있었다는 언급이 없지만, 여성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분명한 언급도 없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했던 불박이 장로 목회자들의 경우 사제 계급으로 바뀌면서 역사에서 사라진지 오래되었다. 순회 전도자들의 경우도 2세기 이후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므로 개신교 목사직 자체가 여성 목사를 포함하여 성서에 없는 별개의 보직이다. 따라서 여성리더십을 거부했던 과거시대의 제도가 본질의 문제일 수 없다.

둘째, 여성이 목사가 되지 말라는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성서의 침묵은 허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여성 목사직의 허용여부는 비본질의 문제이다.

셋째,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전 14:34 상반절)는 권면을 주님의 명령으로 받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린도교회에 무질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라에 실린 613개의 계명에 여성 사제직에 관한 계명이 없다는 유대교인들의 생각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고전 14:34 하반절)에서 바울이 율법을 거론한 것이나 주님의 명령이라고 한 것을 보아 추론할 수 있다. 근현대의 개신교 목사는 사제가 아니므로 여성 사제에 관한 계명이 없다는 이유로 여성 목사직을 차단할 수 없다.

넷째, 개신교 목사직은 근현대 회중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새로운 보직, 즉 ‘만인 사제들’에 속하지만, 전문가로 훈련받고 회중으로부터 초빙되어 풀타임 사역하는 유급 전담 목회자이다. 남녀노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전담하는 전문직이 목사직이라면 여성이 하지 못할 이유를 찾을 수 없게 된다.

다섯째, 개신교에는 제단도 없고, 제물도 없으며, 예배가 제사도 아니다. 따라서 목사는 더 이상 사제(제사장)가 아니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전문 일꾼들이다. 목사가 하는 기능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인위적인 장벽들, 즉 종족의 장벽, 남녀의 장벽, 신분의 장벽, 계급의 장벽을 허무셨으며, 차별 없이 누구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사제(제사장)를 통하지 않

고 직접 나아갈 새롭고 산길을 열어놓으셨다(히 10:19-20). 대제사장이 일 년에 단 하루 두어 차례 들어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보좌(법궤)앞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히 4:16).





## 제8장 여성 목회

번역 및 각주: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출처: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 차례

1. 19세기
2. 20세기
  -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
  - 2.2. 그리스도의 교회들
  - 2.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 1. 19세기

몇 가지 요인들이 19세기 후반 스톤-캠벨운동에서 여성들의 공적인 지도자 역할들과 여성들의 목사안수의 증가에 공헌하였다. 그 요인들 가운데는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여성들이 그들의 남편과 부친으로부터 경제적 법적 독립을 가질 기회들, 더 좋아진 건강의 보살핌과 출산을 저하, 남북전쟁기간에 남성들이 없는 동안에 여성들이 가정, 농장, 업무, 지역사회를 돌보는 일들에서 얻은 기술, 변방의 교회들을 섬길만한 교육받은 남성들의 부족, 그리고 여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교회봉사에 쓸 특별한 은사들을 갖고 있다는 점과 교회선교단체들에서와 당시의 사회개혁운동들에서 쌓은 그들의 경험에서 종종 태동한 점증하는 의식이 증가하고 있었다.

다른 개신교 (예를 들면, 장로교, 루터교, 성공회) 교단들에 비하면, 비록 여성장로직의 폭넓은 수용이 후에 일어났지만, 스톤-캠벨 전통의 여성들은 교회사적으로 일찍 안수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주의 만찬의 집례와 다른 전례기능들이 장로들에 의해서 수행된 교단들에서 여성목사안수는 여성장로들보다 더 일찍 수용되었다. 장로들보다는 목사들이 “사제의” 역할들에 응하는 교단들에서는 정반대였다. 게다가 여성들을 안수한 초기 교단들은 회중교회식으로 조직되고, 개교회의 힘과 자치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그들은 신학교교육을 받은 설교자들이 거의 없고 인구가 희박한 지역들에 개척된 변방 교회들이었다.

그러나 여성안수는 무시할 수 없는 논쟁에 휘말렸다. 성경의 적절한 해석과 적용, 교회행정조직에서의 문화의 역할, 교회의 전도자들 수급의 긴급성, 그리고 설교자들과 전도자들의 권위 있는 기능의 쟁점들이 당시의 교회 출판물, 특히 29명의 다른 저자들이 그 쟁점을 토론한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에서 1891년부터 1893년까지 검토되었다. 핵심 반대자들은 존 B. 브리니(John B. Briney, 1839-1927)와 모르간 P. 헤이든(Morgan P. Hayden)이었다. 주창자들에는 (정규적인 기고자요, 저명한 음악 전도자였던) 펄시스 레몬 크리스천(Persis Lemon Christian), 클라라 헤일 밥코크(Clara Hale Babcock, 1850-1924), 선교사들인 올리버 A. 카르(Oliver A. Carr)와 조지 T. 스미스(George T. Smith, 1849-1920)가 포함되었다.

아이오와 주 협의회 소속으로써 1862년에 출판한 팸플릿에서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기술한 바버라 켈리슨(Barbara Kellison)과 『아포스톨릭 가이드』(*Apostolic Guide*)지(誌)의 기고가인 마린다 레멀트(Marinda R. Lemert)는 스톤-캠벨 전통에서 잘 알려진 여성안수를 위한 대변자들이었다. 다른 한편, 알렉산더 캠벨은 여성에게 안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 주제에 대해 바울의 가르침에 복종할 것을 주창했다고 적었다.

스톤-캠벨운동에서 적은 수의 여성들이 19세기의 첫 수십 년에 이미 교회들을 개척하고, 선교사들로서 섬기며, 신자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전도자들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1815-1817년에 펜실베이니아 주에 교회를 세웠고, 1828년 토마스 캠벨의 방문을 받고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제자들(Disciples of Christ)로 이름을 정한 메리 그라프트(Mary T. Graft), 메리 모리슨(Mary Morrison), 메리 오글(Mary Ogle)과 침례주례자와 목사후보생 모집가로서 활동하였고, 1821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 크리스천 협의회가 세워지는데 공헌한 메리 스톡딜(Mary Stogdill)이 사례들에 포함된다.

목사들이나 목회자들이 회중(교회)들이나 혹은 공식 안수식 때 협의회들로부터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스톤-캠벨 전통에서 안수 받은 최초의 여성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결정하기는 어렵다. 최초로 안수 받았던 몇몇 사람들은 1873년 마이애미 크리스천 협의회(Miami Christian Conference)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엘렌 그란트 거스틴(Ellen Grant Gustin), 대략 같은 시기에 십중팔구 인디애나 주에서 안수를 받은 에미 프랭크(Emi B. Frank), 1867년 오하이오 주에서 안수 받은 메리사 가렐 터렐(Melissa Garrett Terrell), 그리고 1883년 특히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총회(General Missionary Society)로부터 안수를 받은 로라 갈스트(Laura D. Garst), 메리 아담스(Mary L. Adams), 조세핀 스미스(Josephine W. Smith)가 확실히 있었다.

클라라 헤일 밥코크(Clara Hale Babcock)는 1888년 혹은 1889년에 스톤-캠벨 전통에서 설교를 위해 안수를 받은 최초의 여성임을 일반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른 초기 여성 목사들은 1891년에 안수 받은 제시 콜만 몬서(Jessie Coleman Monser), 1892년에 안수 받은 사디 맥코이 크랭크(Sadie McCoy Crank), 1896년에 안수 받은 베르타 메이슨 풀러(Bertha Mason Fuller), 1897년에 안수 받은 클라라 에스피 헤이젤리그(Clara Espy Hazelrigg)가 있었다. 이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여성선교위원회(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 CWBM)와 여성기독교금

주연합회(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에서 또한 활동적이었다. 몇몇 역사가들은 여성기독교주연합회(WCTU)의 연사들로서 또 선교 사역에서의 여성들의 실효성이 그들을 안수 받은 설교가들로서 인정받게 하였다고 믿는다.

비록 십중팔구 결코 안수 받지 않았겠지만, 사라 루 보스틱(Sarah Lue Bostick)은 19세기 후반기에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설교가요, 기독교여성선교위원회(CWBM)의 조직가였다. 다른 아프리카계 미국인,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계 여성들이 20세기에 안수 받은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로서 더 인정을 받았다.

Debra B. Hull<sup>1)</sup>

## 2. 20세기

### 2.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

의술의 발전, 위생의 관심, 공교육기회의 증가, 농촌에서 도시 예로의 이주가 20세기의 여성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선택들을 제공할 성역할의 변화가 뒤얽혔다. 19세기의 개혁 운동에서 활동적인 여성들이 만들어낸 진보가 결국 1919년 금주령(the passage of prohibition)과 1920년 여성참정권이 발표되게 하였다. 20세기 초두에 교회들에서 여성들은 예배자들의 60퍼센트, 선교사들의 60퍼센트, 선교회들의 회원들의 3분의 2, 주일학교 교사들의 90퍼센트를 차지하였다. 이것들과 다른 사회적 종교적 요인들에 응하는 차이점들과 교회에서와 문화에서의 여성들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논쟁이 1920년대에 시작된 분열에 원인이 되어 나중에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로 나뉘게 되었다.

비록 몇몇 지역교회들에서 반대가 여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여성들을 안수하고, 여성장로들을 뽑는다는 사실은 20세

1)역자 주: 휠링 예수회 대학(Wheeling Jesuit College) 교수.

기 스톤-캠벨운동의 다른 지류들로부터 그들을 갈라놓는다. 1900년대에 제자들 교회들에서 여성 성직자들의 수용이 증가한 것은, 비록 동일한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여성들이 다른 직업들에서 얻고 있었던 신장(伸張)들을 반영하였다. 여성 성직자들의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분야에서 그들의 남성 상대자들에 뒤쳐졌다. 그들은 남성들보다 목사직을 덜 요하는 사역들을 하게 되고, 작고, 가난하고, 버둥거리는 교회들을 섬기게 되며, 사례비도 십중팔구 덜 받았다. 예를 들면, 1990년에 제자들 여성성직자들은 대체로 남성성직자 평균 사례비의 77퍼센트를 받았다.

안수 받은 여성들의 수는 20세기의 처음 3분의 2에 걸쳐 서서히 증가하였다. 그녀 자신이 1891년에 안수를 받은 제시 콜만 몬서(Jessie Coleman Monser)는 1931년에 365명의 여성 목회자들(women ministers)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85명이 목사들(pastors)이었다고 보고하였다. 1952년 연합교회여성들(United Church Women)의 조사는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이 298명이었고, 39명이 목사직을 맡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 보고 이후와 전국교회협의회(National Council of Churches)의 요청에 따라 한 위원회가 제자들에서의 여성들의 신분을 고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다. 네 명의 남성, 즉 A. 데일 피어즈(A. Dale Fiers), W. E. 개리슨(W. E. Garrison), 페리 그레섬(Perry Gresham)과 하워드 쇼트(Howard Short)는 물론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여성들을 장려하여 목회를 하게 하며, 섬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여성들에게 제공할 것을 교회에 요구하였다. 거의 20년이 지난 1972년에도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은 여전히 1퍼센트 미만이었다.

20세기 후반 수십 년에는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들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1990년까지 안수 받은 제자들 목회자들의 15퍼센트, (1984년에 대략 4퍼센트를 웃돌던) 담임목사 또는 단독목사의 대략 9퍼센트가 여성들이었으며, (1984년에 약 33퍼센트였던 것에 비해서) 부목사의 약 39퍼센트가 여성들이었다. 2000년 제

자들 교회들의 목사들 가운데 22퍼센트가 여성들이었다.

20세기에 접어들어서야 여성들이 제자들 신학대학(원)들(seminaries)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대학(원)들의 여성들의 비율은 여성 목사들의 비율을 능가하였다. 엘렌 무어 워렌(Ellen Moore Warren)은 1916년에 성경 대학(College of the Bible)을 졸업하였고, 신학학위(divinity degree)를 소지하고 1923년에 안수를 받은 최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성이었다. 1980년대에 제자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약 3분의 1가량이 여성들이었고, 1990년에 제자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43퍼센트가 여성들이었으며, 2000년까지는 제자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의 절반가량이 여성들이었다. 또한 소수의 여성들은 교회에서, 신학대학(원)들에서 그리고 안수 받은 목사들과 부흥강사(전도자)들로서 더욱 뜻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몇 개의 기관들이 20세기 기간에 여성 목회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직되었다. 그 가운데 하나인 국제 여성 설교자 협의회(International Women Preacher's Association)가 에큐메니컬 단체로서 1918년에 창립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목사들이 초창기에 지도자들로 활동하였는데, 루루 헌터(Lulu Hunter)가 1920년에 부회장으로 섬겼고, 메리 리온즈(Mary Lyons)가 나중에 그 단체의 회장으로 섬겼다. 2000년까지 국내목회국(Division of Homeland Ministries)이 안수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여성들이 서로 연락하는 것을 돕고 그들의 사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온라인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었다. 그 소식지는 최초로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으로 널리 알려진 클라라 헤일 밥코크(Clara Hale Babcock)를 기념하여 “클라라의 딸들”(Daughters of Clara)로 불린다.

Debra B. Hull

## 2.2. 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

20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의 사역은 설교, 교육,

교회임원으로서 섬김, 교회 간행물들을 위한 저술 (그것의 지도력은 남녀 모두를 포함한다) 그리고 교회직원 “목회자”로서의 직업과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교회 지도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포함한다. 20세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이 행한 대부분의 사역은 여성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 많은 여성들이 선교, 교육, 저술, 프로그램 지도와 상담에서 귀중한 기여들을 해왔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의 확대된 역할을 외쳤던 초기 주창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설레나 무어 홀만(Silena Moore Holman, 1850-1915)이었다. 그녀는 여성기독교금주연합회(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의 일에서 활동적이었다. 그녀는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창된 것보다 더 다방면에 걸친 여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지지하는 글들을 종종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지(誌)에 기고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갈라선<sup>2)</sup> 이후로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들은 공적인 지도자 역할을 좀처럼 행사하지 못하였다. 몇몇을 제외하고서는 그 주제가 1960년대 후반까지는 근본적으로 거론되지 못하였다. 이 여성들의 공적인 권위 있는 역할의 결핍에 대한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는 데이비드 립스콤(David Lipscomb)과 같은 지도자들에 의해서 표출된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 립스콤은 침묵에 관한 바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여성을 영멸(永滅)에로 인도할 것이라고 『가스펠 애드보케이트』(*Gospel Advocate*)지에서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여성의 공적인 지도자 역할을 제한하는 입장을 취한 또 다른 가능한 요인은 남부지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출현했던 근본주의 운동의 이념들과 교회와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베티 드베르그(Betty DeBerg)는 근본주의가 성별과 가족 논쟁들 때문에 지적운동과 대중운동 모두로써 두드러졌다고 주장하였다. 근본주의의 정기간행물들은 가려낸 성구들을 (예:

2)역자 주: 1906년 제자들과 갈라섬.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갈라지기 이전이었다.

고전 14장 34-35절과 딘전 2장 11-15절) 여성들이 교회에서 잠잠해야한다는 명령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가사(家事)의 본분을 미화(美化)하였다.

개신교에서 성경의 특성과 역할은 여성의 역할에 관한 견해들에 영향을 끼친 또 다른 요인이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알렉산더 캠벨의 해석학적 접근을 따랐다. 캠벨은 상기한 두 곳과 같은 구절들을 실제에서는 문자적으로 읽을 것을 요구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질 것인가와 문화가 어떻게 여성들의 역할을 보았는가에서 모두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s)을 가져왔다. 이들 움직임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에서 여성들”에 관한 개념적 실제적 변화들로 귀착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세기말까지 변화의 증거가 있다. 진보적인 『미션』(*Mission*)지(誌)는 그것이 발행되던 내내(1967-1988) 여성들의 증대된 역할을 지지하는 많은 기사들을 실었다. 1994년에 발행을 시작한 『레븐』(*Leaven*) 역시 교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하여 긍정적인 방법에서 논쟁들을 다뤘다. 20세기에 나타난 가장 실질적인 문헌은 애빌린 크리스천 대학교(Abilene Christian University)의 신약성경 학자 캐롤 오스번(Carroll Osburn)이 두 권으로 편집한 『초기 기독교에서의 여성들에 관한 에세이집』(*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이었다. 이들 두 권의 책은 남성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최초로 쓴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 약 50개의 글들을 담고 있다. 비록 몇 개의 글들은 중립적이지만, 대부분은 교회지도력에서 더 많은 여성들이 포함되는 것을 지지한다.

1970년대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캠퍼스 사역들이 큰 성장을 경험하였다. 1970년대 중반까지 몇몇 캠퍼스들에서 교회들이 여학생들을 섬길 여성사역자들을 채용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들 여성들은 “목회자” 대신에 “여성 카운슬러”로 불렸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은 캠퍼스 사역의 전략적 계획에 크게 관여하였고, 다른 통솔 책임들을 맡았다. 또 몇몇 중심적 위치를 차지



하는 교회들은 교육목회,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상담과 구제 목회 분야에 여성들을 채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같은 배경들에서 그들은 종종 “목회자들”(ministers)로 불렸다.

1989년까지 브루클린 그리스도의 교회(Brookline, Massachusetts)는 교회사역들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들의 공적 활동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진술을 후보뒷면에 부착하였다. 1987년에 그들은 두 명의 강단 목회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성을 채용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행한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였을 것이다. 최근에 한 다른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사역의 모든 측면을 위해 남편과 부인을 한 팀으로 채용하였다. 여성들을 위해 역할들을 확장한 다른 교회들은 휴스턴 소재의 베링 드라이브 그리스도의 교회(Bering Drive Church of Christ in Houston)와 코네티컷 주 소재의 스태포드 그리스도의 교회(Stamford Church of Christ in Connecticut)를 포함한다. 1990년대 또한 여성들의 이슈들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가 몇몇 교회 협의회들과 크리스천 대학교들의 학술강좌들에서 이뤄졌다. 점증하는 수의 회중들이 설교들, 수업들, 특별 세미나들과 포럼들에서 예배에서의 여성들의 지도력과 회중통치를 위해 더 많은 연구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방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권위 있는 역할들에 여성들을 최근에 쓰고 있는 교회들의 비율을 알기가 어렵다. 그러나 대화와 토론들은 21세기에 들어서서도 지속되었다. 비록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목회에서 여성들의 역할과 범위가 점증하는 수의 교회들에서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Kathy J. Pulley<sup>3)</sup>

### 2.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sup>3)</sup>역자 주: 사우스웨스트 미주리 주립 대학교(Southwest Missouri State University) 교수.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목회의 직책들, 특히 목사로서 섬기는 여성들의 수용에서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이 태도는 여성들의 안수에 대한 질문에서 특별히 드러난다. 1890년 이후 『크리스천 스탠더드』(*Christian Standard*)에 실린 기사들의 한 조사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에서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하여 계속 진행되고 있는 토론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사례들에서 그 이슈는 여성이 교회직원으로 섬길 수 있는가보다는 그녀가 안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 더 치중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경향은, 일단 그들이 여성들을 안수하면 (예: 일반적인 목회를 위해서보다는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그들 자신들이 비슷한 직책들에서 섬길 뜻이 있는 남성들이 특정 사역에 한정하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목사안수를 받아왔던 반면, 특별한 사역에 여성들을 안수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목회에서의 여성들에 관한 최근의 견해들은 다음과 같이 대충 요약될 수 있는 연속성을 따른다.

1. 여성들의 어떤 지도자 역할, 특히 공적인 목회에서의 역할을 거부. 여성들의 역할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안일을 돌보며, 식품행사들에 제한된다.
2. 안수혜택 없이 아이들이나 음악 사역과 같은 어떤 특정 직책들에 여성들을 수용.
3. 담임목사직을 제외한 거의 어떤 사역에서나 여성들을 수용하고 안수를 허용.
4. 어떤 측면의 사역에서도 여성들을 수용하고 안수함.

논쟁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담임목사직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역들에서 항상 일해 왔다. 최근에 목회에서 여성들의 지배적인 수가, 비록 세 번째 범주의 수가 늘고는 있지만, 상기한 두 번째 범주에 해당된다. 약간은 네 번째 설명에 해당된다.

여성들은 남성들을 거의 구할 수 없을 때와 지역들에서 종종 목회에 종사해왔다. 상황들이 변하고 남성들을 구할 수 있을 때

는 그들이 선택을 받아 목회의 직책들을 채웠다. 1945년 이전에는, 예를 들면, 많은 여성 설교자들이 오클라호마 주에서 교회들을 섬겼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와 미드웨스트 크리스천 대학(Midwest Christian College), 댈러스 크리스천 대학(Dallas Christian College), 오작크 크리스천 대학(Ozark Christian College)이 설립된 이후, 더 많은 남성들이 목회 교육을 받게 되었고, 목회에서의 여성들에 관한 토론이 격렬해지면서 강단들은 여성들에게 닫히게 되었다. 그러자 여성들은 청소년 사역의 직책들을 맡게 되었다. 그것들도 곧바로 주로 남성들을 위한 직책들이 되었으나 기독교 교육이나 음악 사역들이 여성들의 몫으로 남았다. 그 직책들은 교회들에서 더욱 흔하게 되었으므로, 그것들 또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로 일반적으로 채워졌다.

그러나 『1997년 목회 주소록』(1997 *Directory of the Ministry*)과 『2001년 목회 주소록』(2001 *Directory of the Ministry*)의 비교 조사는 여성들의 수가 지역 교회들에서, 선교지에서 또 파라처치(parachurch)<sup>4)</sup> 단체들의 목회 직책들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77년에 403명의 여성들이 주소록에 열거되었고, 담임목사(pastor, 한 곳의 사례에서)로서, 부목회자들로서, 학생부, 유초등부, 성인 교육, 기독교 교육, 상담 및 음악 목회자들(ministers)로서, 주변교회 단체 관리자로서 및 성경 대학 교수들로서 섬겼다. 『2001년 주소록』은 목회에서의 여성의 수가 879명으로 배이상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항목별 계수는 다음의 표에서와 같다.

#### 1997년과 2001년의 여성 목회자들의 수(數) 비교

직책	2001년 1997년	
	1	2
담임목사/협동목사	1	2
부목사	56	17

4)역자 주: 로컬 처치(Local Church)를 넘어서는 보다 폭이 넓은 개념으로써 선교단체들을 말한다. IVF, CCC, DFC, 네비게이토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교육목사/디렉터	31	29
청소년목사/디렉터	87	30
유초등부목사/디렉터	258	123
상담	14	7
캠퍼스목사	17	2
음악 혹은 예배목사/디렉터	147	71
행정가	1	12
여성담당 목사	34	8
노인담당 목사	8	5
성경 대학의 교수/행정가	154	79
기타	71	18
-----		
합계	879	403

또 이 조사는 『2001년 주소록』에 열거된 모든 교회들의 대략 11퍼센트가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을 그들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여성들은 적어도 36개주에서 목회자의 직책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 여성 목회자들의 수가 가장 많은 주들은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 오리건 및 테네시 주들이며, 이들 주(州)들은 목회관련 직원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여성 30명 이상을 갖고 있다.

역사적 진실들이 무엇이었던지 간에, 다양한 사역들에서 섬기는 여성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교회들에서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될 경향으로 보인다.

Eleanor A. Daniel<sup>5)</sup>

## 【참고서적】

<sup>5)</sup>역자 주: 임마누엘 신학대학원(Emmanuel School of Religion)의 교수. 조동호 목사의 기독교교육학 은사.

- Bailey, Fred A. "The Cult of True Womanhood and the Disciples Path to Female Preaching," in *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 ed. Carroll D. Osburn, vol. 2(1995), pp. 485-517.
- Bailey, Fred A. "The Status of Women in the Disciples of Christ Movement, 1865-1900"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nnessee, 1979).
- Bynum, LaTaunya. "The Situation and Trends in the Ministry of Disciples of Clergywomen Six Years Later," *Discipliana* 51:3 (Fall 1991): 35-37.
- Carver, Fran. "Her-Story: Our Foremothers in the Faith," *Leaven* 4:2 (1996): 32-37.
- Deberg, Betty. *Ungodly Women: Gender and the First Wave of American Fundamentalism* (1990).
- Griffith, Anna M. "A Look at Women in Ministry Today," *Leaven* 4:2 (1996): 44-47.
- Harrison, Ida Withers. *The Christian Woman's Board of Missions, 1874-1919* (n.d.).
- Hartsfield, Elizabeth. *Women in the Church: A Symposium on the Service and Status of Women Among the Disciples of Christ* (1953).
- Holley, Bobbie Lee. "God's Design: Woman's Dignity," *Mission* 8 (March 1975): 5-7.
- Hull, Debra B. *Christian Church Women: Shapers of a Movement* (1994).
- Lantzer, Mary Ellen. "An Examination of the 1892-93 Christian Standard Controversy Concerning Women's Preaching" (M.Div. thesis, Emmanuel School of Religion, 1990).
- LaRue, Mary Ellen. "Women Have Not Been Silent: A Study

- of Women Preachers Among the Disciples," *Discipliana* 22 (1963): 85-89.
- Monser, Jessie C. "Women in the Ministry," *The Christian-Evangelist* 68 (November 1931): 1526-27, 1531.
- Olbricht, Thomas H. "Women in the Church: The Hermeneutical Problem," in *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 ed. Carroll D. Osburn, vol. 2 (1995), pp. 545-68.
- Osburn, Carroll D. Ed. in *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 2 vols. (1993-1995).
- Pulley, Kathy J. "Gender Roles and Conservative Churches: 1870-1930," in *Essays on Women in Earliest Christianity*, ed. Carroll D. Osburn, vol. 2 (1995), pp. 443-83.
- Pulley, Micki A. "What Shall I Do: My Gender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Mission Journal* 21 (November 1987): 34-37.
- Sechler, Earl Truman. *Sadie McCoy Crank (1863-1948): Pioneer Woman Preacher in the Christian Church (Disciples)* (1950).
- Zuber, Glenn. "'The Gospel of Temperance': Early Disciple Women Preachers and the WCTU, 1887-1912," *Discipliana* 53 (Summer 1993): 47-60.

## 제9장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에 관한 소고

조동호 목사(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 차례

1. 유대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2. 신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3.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 1) 19세기 여성 사역자들
  - 2) 20세기 여성 사역자들
    - (1)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Discipl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 (2)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 (3)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나오는 글

### 들어가는 글

이 글의 목적은 신학적 쟁점의 하나인 여성 사역자의 당위성과 그리스도의 교회에서의 여성 사역자에 관해 간단히 정리해 보는데 있다. 더불어서 ‘목사’와 ‘장로’ 개념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변천되어왔는지, 신약성서교회가 쓴 개념과 일치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개념을 재고하자는데 있다.

이 글은 학술논문의 성격보다는 필자가 이전부터 생각해 왔고 깨닫고 있던 내용을 정리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참고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 1. 유대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부족시대로부터 히브리 공동체들은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장로회를 두었다. 특히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배이후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를 발전시켰는데, 그 장소가 회당이였다. 회당은 기도회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율법재판이 이뤄지는 유대교 공동체의 중심이였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유배지들과 남의 나라들을 떠돌았지만,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끝내 살아남아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당 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였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판관들이였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율법규정에 따라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율법은 613개의 토라계명들뿐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오다 주후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기록된 탈무드에 담긴 규례와 관습법들까지 포함되였다. 그들이 관리했던 회당이 예배당이자, 학교였고, 지방공회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눅 21:12),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행 22:19)와 같은 성구들이 회당이 지방공회였음을 말해준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은 세 명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나 증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낫게 해주려고 가버나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들 장로들이 회당장들이었다(눅 7:3). 이들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었고(마 23:6), 아이로는 “회당장들 중 한 명”(막 5:22)이었으며, 예수님, 바울, 바나바 등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각 회당의 회당장들이 이를 허락했기 때문이다(막 1:21, 눅 6:6, 행 13:15, 19:8).

유대인들의 기도회는 매일 오전, 오후, 저녁 세 차례 회당에 모여 18(19)개의 베라코트로 이뤄진 ‘쉐모네 에스레이’를 낭송하고 시편들을 노래(chanting)하며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오전 기도회 때에는 모세오경을 54개로 나눈 ‘파르쉬요트’(Parshiyot) 가운데 해당 주의 ‘파르샤’(Parshah)를 1개 혹은 2개씩 및 역사서(전기예언서)와 예언서들 가운데서 해당 주의 파르샤와 관련된 몇 개의 성구들로 구성된 ‘하프타라’(Haftarah)를 봉독자를 통해서 읽는다(눅 24:44, 행 13:15).<sup>1)</sup>

설교는 해당 주의 파르샤와 하프타라에 대해서 해설하는 것으로써(행 28:23) 필요할 경우 회당장들로부터 지명을 받은 자나 자원자 등이 나서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유대교가 교리종교가 아니고 실천종교이기 때문이었고, 기도문을 낭송하기 위한 모임의 특성상 전담 설교자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다. 회당에 설교자가 따로 없었고 회당장이 여러 명이였다는 증거는 신약성서에 많다.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4-15절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파르샤와 하프타라)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신학교육을 받은 랍비들이 그리스도교의 목사들처럼 목회자로 사역하고 있다.

유대교의 장로들은 모두 남성들이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1) Judaism101, “Jewish Liturgy” 및 “Torah Readings,” <http://www.jewfaq.org/readings.htm>, [2018년 9월 16일 인용].

은 13세 이상의 '계명의 아들'(Bar Mitzvah)들을 뜻하였다. 여성들은 계명들을 지켜야할 의무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통파(근본주의)를 제외한 보수파, 개혁파(진보주의), 재건파(급진주의)에서 여성 랍비들을 허용하고 있다. 1922년 재건파를 세운 랍비 카프란(Kaplan)은 남녀동등의 차원에서 '계명의 딸'(Bat Mitzvah) 성인식(남자는 13세에, 여자는 12세에 행하는 유대교 성인식)을 처음 도입하였고, 개혁파에서도 이를 따라하고 있다. 보수파에서는 1980년대부터 여성 랍비제도를 수용하고 있다. 계명의 딸과 여성 랍비를 수용하는 유대교 교파들, 특히 개혁파와 재건파는 정통파가 중요시하는 토라의 의식법보다는 도덕법을 더 중요시한다.<sup>2)</sup>

## 2. 신구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의 여성 사역자

그리스도교 초기에는 예루살렘과 안디옥교회의 경우 교회의 감독자와 치리자들이 장로들이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수장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였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도들과 선지자(예언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도 있었다. 장로들이 지역교회 공동체의 감독자와 치리자들이었다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전도자들은 파송을 받아 교회들을 순회하며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었다(행 13:1-3, 딤후전 4:14).

사도들의 직무는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이었다(행 2:42, 6:2,4). 예루살렘교회에서는 사도들이 이 직무에 충실코자 하여 성도들을 섬길 지도자들을 뽑았는데, 이들 일곱 사람들은 모두 디아스포라(헬라파) 유대인 남성들이었다(행 6:5). 예루살렘

2) "Four branches of Judaism,"

[https://media.lanec.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https://media.lanec.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 [2018년 9월 16일 인용].

교회에는 사도들 이외에도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들과 선지자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행 11:27-30) 이들 일곱 사람들이 장로들이었는지, 선지자들이었는지 혹은 집사들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이때 뽑힌 빌립이 전도자였다는 점이다(행 21:8). 안디옥교회에서는 장로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대신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교회지도자들로 부각되어 있다(행 13:1).

바울이 선교지에서 교회를 설립한 후 복수의 장로들을 선출하여 장립한 것은 바로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들에 필적한 것이었다. 개개의 회당에 세 명의 회당장 장로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지 교회들에도 세 명의 장로들을 세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은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예루살렘교회에도 복수의 장로들이 치리하였다(행 15:4,6). 바울이 세상 법정을 멀리하라고 권면한 것은 교회에도 회당장들에 해당되는 이들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이다(고전 6:1-8).

개교회의 장로들은 지역교회의 목자(사)와 감독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가 신약성서에 분명히 명시되어져있다. 특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은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책이 양무리를 보살피는 목자와 감독자임을 주지시켰다. 동일한 맥락에서 야고보서 5장 14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고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스스로를 일컬어 ‘장로’라고 하였다(벧전 5:1, 요이 1:1, 요삼 1:1). 그러나 그들이 반드시 설교자일 필요는 없었다. 성례를 집행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설교를 맡아하는 장로 설교자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에 의해서 처음 언급되었다. 이그나티우스가 서머나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언급한 주교/감독의 직무는 다수 장로들의 으뜸 곧 오늘날의 담임 목사에 필적하는 것이었다.<sup>3)</sup>

구약성서시대 때부터 이미 여성 사역자들은, 비록 그들이 감독자와 치리자들은 아니었을지라도, 분명 존재해왔다. 구약시대에 미리암(출 15:20), 드보라(삿 4:4), 홀다(대하 34:22, 왕하 22:14), 노아द्या(느 6:14), 안나(눅 2:36) 등의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다. 신약시대에도 여성 선지자가 있었다. 전도자 빌립의 네 딸들이 바로 그들이었다(행 21:8-9). 아굴라의 부인 브리스길라(롬 13:3)는 에베소 교회의 유력한 일군이었고, 바울의 추천을 받았던 뵈뵈(롬 16:1-2)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이었으며, 유오디아와 순두게는 빌립보교회의 일군들이었다(빌 4:2-3). 외경 <바울과 테클라 행전>에 따르면, 아름답고 눈물겨운 전설과 미모를 지닌 전도자 테클라(Thecla)도 있었다.

뵈뵈의 직책이 “교회의 일군”이었는데, 여기서 ‘일군’은 ‘디아코노스’이다. ‘디아코노스’는 ‘집사’ 또는 ‘일군’을 의미한다. 이 용어는 쓰이는 범위가 넓다. 예수님도, 사도들도, 장로들도, 집사들도 모두 ‘디아코노스’였다. 이 용어를 ‘집사’로만 생각해서 뵈뵈를 여성 집사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만일 뵈뵈가 정말 집사였다면, 집사도, 개신교를 제외하고는, 역사적으로 낮은 성직이기 때문에 뵈뵈를 성직자로 볼 수 있게 만든다. 여성이 집사와 장로직에 올랐다는 기록이 희박한 것이 사실이나 주후 112년경에 소 플리니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쓴 편지에서 비두니아 지역에 거주한 두 명의 여성 집사를 언급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sup>4)</sup>

우리말 성서에서 ‘선지자’와 ‘예언자’는 모두 설교자이다. 다만 ‘선지자’는 히브리어의 ‘로에’(ro’eh)나 ‘호제’(chozeh)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렘 24:1, 겔 37:1, 암 7:1, 슥 3:1)을 전한 자들이었다면, ‘예언자’는 히브리어 ‘나비’(Nabi)에서 나온 말로써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sup>5)</sup> 이런 점에서 볼 때, 여성 선지자들도 설

3) J. B. Lightfoot, “Epistles of S. Ignatius to the Smyrnaeans viii.”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84.

4) Pliny Epistles 10.96 and 97, (Richard Hooper tr.).

교자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여성들이 예언하는 것을 제한한 것은 당대의 악명 높았던 바쿠스축제와 그 축제를 주도한 여성 사제들의 광기 때문이었다. 바울시대에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 사제들은 술방울과 리본으로 장식한 디오니소스 지팡이(thyrsos)를 손에 들고 술에 취해 예배자들과 함께 머리를 앞뒤로 심하게 흔들며 광적이고 음란한 춤을 추었다. 바울이 기도나 예언하는 여성들에게 수건으로 머리를 덮어 옷차림을 단정히 할 것과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격식을 갖춰 시행할 것을 권면한 이유를 이런 배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전 11장). 플라톤은 저서 <파이드로스>(Phaidros)에서 소크라테스의 입을 빌려 신들림을 '신성한 광기'라고 부르면서 예언적 광기가 아폴론에게서, 비의(秘儀)적 광기는 디오니소스, 시적 광기는 뮤즈, 사랑의 광기는 에로스에게서 온다고 하였다. 여기서 광기는 신의 영감 혹은 신의 선물 곧 은사를 뜻한다. 델포이는 이 예언적 광기가 충만한 대표적 신탁소여서 퀴티아의 예언에 따라 국가의 중대사가 결정되곤 하였다.

이런 배경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광기를 바로 잡고자 하였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진짜로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다고 했다. 2절에서는 아폴론의 신탁을 전하는 델포이 신전의 퀴티아(Pythia)의 광기나 바쿠스(디오니소스) 여성 사제(Maenad)들의 광기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한 거짓 것됨을 암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광기가 접신을 시도하는 박수나 무녀들뿐 아니라, 은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있어왔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광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상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

5) 왕대일, “예언자와 선지자 - 예언서 읽기(2),” <기독교타임즈>,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 2003년 1월 23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는 잣대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신앙고백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가장 신령한 것을 사랑이라고 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랑이 가장 뛰어나게 표현된 것이며,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설교)하는 것이 예언이며, 인간을 회개케(권면)하여 회복(희망, 위로)시키고 세우는(살리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하였다.

평소 바울의 지론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는 것이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이란 것이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종족의 차별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에베소 3장에서는 이 사실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9절)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8절)이라고까지 하였다. 구원에 차별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목회사역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는가?

구약성서의 역사가들과 예언자들의 활동내용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이었다. 이 두 운동의 근거는 하나님과 히브리민족사이의 언약이었고, 그 내용이 토라(모세오경)이고, 토라의 핵심이 십계명이다. 토라는 총 613개로써 248개의 ‘~하라’는 계명과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구성되어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 지켜야할 4개의 계명과 이웃에게 지켜야할 6개의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라이외의 나머지 구약성서들은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는데, 성문서는 예배와 전도문서이고, 역사서(전기 예언서)와 예언서는 두 가지 다 민족의 흥망성쇠를 토라에 근거하여 성찰한 영감의 글들이다.

성서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의 예언자들과 신탁소의 무당들처럼 앞날에 대해 점을 치지 않았다. 그들의 예언활동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서 떠나 재앙을 당하는 백성에게 회개

운동을 펼친 것이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회복운동을 펼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은 이 회복운동에 포함된 것이었다.

세례 요한, 예수님, 사도들도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펼쳤다. 예수님의 첫 설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마 3:2)였다. 교회시대의 문을 개방한 베드로의 첫 설교도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행 2:38)였다.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말씀, 구원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예언으로 보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가 신령한 자요 교회에 덕을 세우는 자라고 하였다. 이 같은 내용은 다니엘서와 계시록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말씀 선포)을 하려고 하라”고 권하였다.

성서시대에 여성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점에서 볼 때, 또 그들의 직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선포하는 설교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여성 설교자들을 금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2세기 무렵부터는 설교와 복음전파를 전담했던 떠돌이 순회사역자들이 교회들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고; 둘째, 이미 교회들은 사도들이 살아서 활동하던 때로부터 예비교파(유대교적 그리스도교)와 영지교(성육신을 부정하는 영지적 그리스도교)의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었으며, 사도들이 죽은 이후 교회들은 떠돌이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지 않은지 먼저 의심부터 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6)</sup> 결국 교회들은 3세기 말까지 남성 장로들의 지도와 감독아래 지속되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당은 적어도 4세기말까지는 유대교 회당제도에서 비롯되었다. 이 당시 예배당의 입구는 동쪽에 베마와 성서궤는 서쪽에 위치했다.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유

6)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분도출판사, 1993), “제11장 떠돌이 사도들과 예언자들 접대” 및 “제13장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 공양” 81-92.

대교 회당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고, 성소출입구가 동쪽에 있었던 것과 같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예배도 그 기본적인 틀이 유대교 기도회에서 비롯되었다. 다만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의 차별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매일 세 번 낭송한 쉼모네 에스레이를 대신하여 주기도문을 하루 세 번 낭송하도록 권하였고, 유대교인들이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하던 것을 그리스도교에서는 수요일과 금요일에 하도록 권하였으며, 각각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물속에 잠기는 개종 침례와 매주일 행하는 주의 만찬을 행하였다.<sup>7)</sup>

### 3.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313년 박해시대가 끝나자 교회는 삼위일체와 단일신론으로 심각하게 분열하였다. 종교의 자유를 선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주교들을 니케아에 모이게 하여 이 문제를 토론하게 하였고, 삼위일체파들이 단일신론파를 누르고 만들어낸 최초의 신앙고백서가 바로 '니케아신조'였다. 이후로도 논쟁이 지속되었으나 380-90년대에 밀라노의 테오도시우스 대제, 밀라노의 대주교 암브로시우스,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지한 삼위일체신앙이 보편적(catholic) 신앙으로 굳어졌고, 392년 그리스도교가 제국종교가 되면서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하는 미사의 제사화 곧 봉헌신학과 성체신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장로들이 제사장으로 둔갑되어 계급화 되었고(부제=집사, 사제=장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 혹은 보제, 사제, 주교, 대주교, 총대주교), 설교와 대표기도가 순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4세기이후 근

7) 앞의 책, “제7장 세례” 및 “제8장 주간 단식과 주님의 기도.” 55-64; 이형우 역주, <히벨리투스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제21장 거룩한 세례의 전통에 대하여,” 127-142.



대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 공동체들에서 떠돌이 순회 목회자 개념의 전도자, 선지자, 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 감독자와 목양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빈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원칙은 회중에 의해 선출된 회중의 대표가 치리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20인, 60인, 200인의 시의회들에서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채 남성들만으로 배정된 인원수대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고, 칼빈은 이들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한바가 있다. 존 녹스 역시 칼빈이 제네바에 확립시킨 개혁교회 장로회 제도를 도입하여 스코틀랜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에 정착시켰다. 스코틀랜드에서 회중이 선출한 치리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당회(session)가 스코틀랜드에서 시작된 것은 1563년부터였다. 이때 치리 장로의 임기는 제네바에서와 마찬가지로 1년이었으나 인적자원의 부족을 이유로 1578년부터는 종신직으로 바꿨다.<sup>8)</sup>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체제 아래에서조차 16세기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실용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는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유대교에서는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 지성소의 하나님의 보좌(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 뿐으로서 대속제일 날 하루 두 차례 정도 자신의 죄를 위해서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성막시대에는 백성이 출입할 수 없는 문(성막회장, 성소회장, 지성소회장)이 세 곳이나 되었고, 성전시대에는 이방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미문(민족의

8) 강원돈, '교역윤리 3: 교회 치리회 구성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강원돈의 신학아키브>, <http://socialethics.org>, 에세이\_59번, 2010년 2월 22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담),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곧 계명의 아들들만이 출입하는 니카노르문(성별의 담), 제사장들만이 출입하는 제사장의 문(신분의 담), 대제사장만이 출입하는 지성소의 문(계급의 문)이 존재하였다.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 시라는 점과 문이 그분의 육체임을 강조하고 있다(요 10:9, 히 10:20). 예수님은 문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상징하는 지성소회장을 갈라놓으심으로써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였고, “궁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만인사제의 의미이다. 대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대제사장인 것처럼,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님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하는 교황과 사도직 계승을 주장하는 사제들로 인해서, 곧 가톨릭교회의 유대교화로 인해서, 개인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다시 막혀 버렸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 연 자들이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이었다.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은 “근원(뿌리)으로부터”(Ad Fontes) 곧 성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였고, 고대 사본들을 찾기 위해 유럽의 도서관들과 수도원들을 조사하였으며, 성경의 원본을 복원하고 이를 모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이 운동이 츠빙글리와 스위스 개혁주의에 영향을 끼쳤다.

종교개혁가들은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의 영웅들인 루터, 츠빙글리, 칼빈, 부처, 녹스는 본래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었고, 국가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루터교회, 개혁신교회, 영국교회가 다 국가종교였으며, 국가종교에 반대하여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파와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나 국가는 이들을 역사나 화형으로 다스렸다.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장로제도는 평신도 대의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해서 여성들을 배제시킨 채 남성들만으로 뽑힌 장로들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제도였다.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시대나 가톨릭미사에서처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제단도 사제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만인사제의 의미는 사제체제를 엄히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종교개혁 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제도가 분명 평신도 대의제란 점에서 볼 때 여성이 선출직 장로나 설교자 또는 전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 4.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유럽에서는 개신교조차도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종교체제였으나 신대륙 특히 미국에서는 자유, 독립, 개혁, 일치(연합), 실용이라는 정신이 충만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교회들에서는 떠돌이 순회 사역자들의 개념이 되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평신도 대의제 장로와는 별개인 전도자, 설교자, 목회자 개념이다.

1달러 지폐 뒷면에 그려진 두 개의 미국합중국 국장은 연합, 자유, 독립, 개혁정신의 상징으로써 1782년에 제정되었다. 국부들은 낙관적 후천년설의 입장에서 1776년 13개 주를 연합하여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미합중국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서 자국민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18-19세기 미국의 성공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공도 이 같은 연합, 자유, 독립, 개척정신과 ‘새 천년시대의 선구자’(Millenniel Harbinger)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

환원운동가들은 떠돌이 순회 목회자들을 “복음 선포, 새 신자 양성, 교회 개척을 위해서 교회로부터 파송된” 전도자(목회자)들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장로들을 “교회에 의해서 권위를 부여받아 공동체를 이끌고, 가르치고, 덕을 쌓게 하고 - 지식과 이해로써 주님의 교회를 먹이고 - 그들의 영혼들을 지키는 자들”로 보았다.

캠벨의 개혁가들과 스톤의 그리스도인들이 통합한지 10여년이 경과된 1840년대에 이르러 대학에서 신학교육을 받고 교회에 초빙되어지는 유급 전임목회자들의 시대가 열렸고, 이들에 대한 신분에 대한 토론이 1890년대에 이르러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편에서는 전도자(목회자)들을 장로들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장로들의 엄격한 감독과 지배에 복종해야 할 자들로 보았고, 다른 편에서는 전도자(목회자)가 여러 장로들 가운데 주도적이고 첫째가 되는 장로라고 보았다. 이 경우 장로들은 조언을 하거나 주의 만찬상을 섬기고 목양을 하는 자들이며, 전도자(목회자)는 으뎌 장로로서 일차적으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책임을 수행하는 자이다.<sup>9)</sup>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오늘날의 일부 교회들에서는 전도자(목회자)들도 매년 하는 선출직 장로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다.

9) Peter M. Morgan, "Elders, Eldership,"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297-299.

## 1) 19세기 여성 사역자들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제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유무약기 분열이전 시대인 1800년대에 안수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20여 명에 이르렀다. 이들의 이름과 사역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에 실린 '교역/목회(Ministry)'와 '여성 사역(Women in Ministry)'에 관한 논문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sup>10)</sup>

## 2) 20세기 여성 사역자들

### (1) 그리스도인의 교회(그리스도의 제자들)(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진보노선을 걷고 있다. 여성목사 안수에 가장 적극적이며, 미국대통령 바락 오바마의 취임식 뒤에 열린 전통적인 국가 기도회(National Prayer Service) 때에 설교를 맡은 목사가 바로 제자들의 총회장인 샤론 와킨스(Sharon Watkins) 여성 목사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독립교회들인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완전히 분리되어나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1968년 교단을 재구성한 이후로 안수 받은 여성 사역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에 소재한 브라이언트신학대학원의 총장 뉴웰 윌리엄스(D. Newell Williams)의 조사에 의하면, 1984년까지 제자들 여성 목사가 112명(제자들 목사들의 4.2 퍼센트), 제자들 여성 부목회자가 120명(제자들 부목회자들의 32.8 퍼센트)이었고, 1984년 595명의 안수 받은 제자들 여성들은 전체 안수 받은 제자들 목회의 거의 10퍼센트에 상당하였다. 1980년대 초에 여성들은 제자들 신학대학원 등록수의 3

---

10) 정남수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9-30, 502-507.

분의 1을 차지하였고, 2000년까지 그 비율은 2분의 1까지 증가하였다.<sup>11)</sup> 1990년까지 제자들의 담임 목사 또는 단독 목사가 15퍼센트, 부목사가 39퍼센트로 올라섰다. 2000년에는 제자들 목사들 가운데 22퍼센트가 여성으로 채워졌다.<sup>12)</sup>

## (2)그리스도의 교회들(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1906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갈라선 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960년대까지 교회에서의 여성의 활동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1970년대에는 캠퍼스 사역자로 여성들이 고용되었으며, '여성 카운슬러'로 불렸다. 이후 여성들은 교육목회, 어린이목회, 청소년목회, 상담목회, 구제목회 등에 고용되었고, 종종 '목회자'(ministers)로 불렸다. 참고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는 여성사역자들을 '디렉터'(directors)로 부르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에는 '목회자'(ministers)로 고쳐 부르는 추세이다.

1989년 '브루클린 그리스도의 교회'(Brookline, Massachusetts)는 교회사역의 모든 측면에서 여성의 대중적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진술을 후보 뒷면에 부착하였다. 이 교회는 1987년에 두 명의 강단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서 여성을 고용한 바 있다. 최근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모든 측면의 사역을 담당할 목회자로 남편과 부인을 한 팀으로 고용하였고, '베링 드라이브 그리스도의 교회'(Bering Drive Church of Christ in Houston)와 '스탬포드 그리스도의 교회'(the Stamford Church of Christ

11) D. Newell Williams, et. al.,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530.

12)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778.

in Connecticut)와 같은 다른 교회들도 교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확대시켰다. 이런 추세에 힘입어 여성들의 고용도 점증하고 있다.<sup>13)</sup>

### (3)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에서의 여성 사역자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은, 1988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약 10퍼센트의 교회들이 여성 집사들을 두고 있었고, 그 수는 약 8천 명 가량이며, 약 1퍼센트에 해당하는 교회들이 100여명의 여성 장로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약 38퍼센트의 교회들이 960여명의 여성 목회자를 고용하고 있었다. 이들 여성 목회자들은 대부분 교육, 음악, 초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부목이나 원목으로 사역하는 여성 목회자들은 거의 없었다.<sup>14)</sup>

1997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1997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 목회자 또는 협력 목회자가 2명, 부목회자가 17명, 교육 목회자(디렉터)가 29명, 청소년부목회자(디렉터)가 30명, 유년부 목회자(디렉터)가 123명, 상담 목회자 7명, 캠퍼스 목회자 2명, 음악 목회자(디렉터)가 71명, 행정 목회자 12명, 여성전담 목회자 8명, 노인전담 목회자 5명, 대학의 교수 목회자 또는 행정 목회자 79명, 기타 18명 포함 403명으로 나타났다.

2001년에 발행된 <목회 주소록>(2001 Directory of the Ministry)에 의하면, 담임 목회자 또는 협력 목회자가 1명, 부목회자가 56명, 교육목회자(디렉터)가 31명, 청소년부목회자(디렉

13)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Ibid.*, 779-80.

14) Glenn M. Zuber,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8-9.

터)가 87명, 유년부 목회자(디렉터)가 258명, 상담 목회자 14명, 캠퍼스 목회자 17명, 음악 목회자(디렉터)가 147명, 행정 목회자 1명, 여성전담 목회자 34명, 노인전담 목회자 8명, 대학의 교수 목회자 및 행정 목회자 154명, 기타 71명 도합 879명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36개주에서 11퍼센트의 교회들이 적어도 한 명이상의 여성 목회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sup>15)</sup>

여기서 우리는 1997년 403명이었던 여성 사역자들이 불과 4년만인 2001년에는 그 숫자가 배 이상인 879명으로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 5.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

1924년부터 1940년까지 동경에 주재한 윌리엄 D. 커닝햄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및 조선선교회 기독교회들에도 여성 사역자들이, 비록 그들이 모두 전도사들이었기는 해도 다수가 존재했었다. 서울 아현동 소재 성경훈련원의 졸업생 임화순, 이권신, 평화일 등이 심방 전도사로 사역하였다.

해방 후 재건된 유약기 그리스도의 교회들에는 심방 전도사뿐 아니라, 단독 목회자들도 제법 있었다. 김은석 목사의 성경통독메모와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지들을 보면, 안영숙, 임혜숙, 전도희, 하복례, 김현숙 등의 여성 사역자들이 나오고, 이들 가운데 임혜숙과 전도희는 단독 목회자였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 협의회는 여성 사역자의 교역사회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 목회를 하는 여성 사역자가 없다. 극소수의 교회들만이 심방이나 교육을 담당하는 여성 전도사들을 두고 있을 뿐이다.

15) Debra B. Hull, Kathy J. Pulley, Eleanor A. Daniel, "Women in Ministry," *Ibid*, 780-81.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협의회는 2009년 7월 23일 서울기독대학교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제3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여성 안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우리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여성 목사제도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협의회는 전도사 신분을 가진 여성이 단독으로 목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10여명에 가까운 여성 사역자들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국 그리스도의교회 총회는 2000년 10월 30-31일 제65차 정기총회 때 여성 안수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2001년 10월 25일 제66차 정기총회 때 통과시켰고, 지금까지 수십여 명의 여성이 총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다. 2018년 9월 17일 개최된 제83차 정기총회록에 의하면,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 등록된 목사는 총 77여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 목사가 26명 정도로 전체 목사의 약 3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총회록에 의하면, 2018년 현재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총회에는 남성 목사 51명, 여성 목사 26명, 남성 장로 7명, 남성 전도사 3명, 여성 전도사 7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 나오는 글

지금까지 유대교, 신구약성서와 초기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가들,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의 여성 사역자들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였다. 기술된 내용을 요약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유대교 회당에서 설교자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둘째, 신구약시대 모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여성 선지자/예언자들이 있었다.

셋째,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지역교회를 감독하고 목양하는 장로들만의 몫이 아니었다. 1세기 말까지는 사도, 전도자, 선지자(예언자), 교사들이 말씀을 선

포하고 가르치는 순회 목회자들이었다.

넷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갈 3:28). 구원에 남녀의 차별이 없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역에 힘쓰는”(행 6:4) 목회사역에 남녀노소의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

다섯째, 그리스도교는 4세기말부터 국가종교체제아래 놓이게 되고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으며,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하는 미사의 제사화로 인해서 장로들이 제사장으로 둔갑되어 계급화 되었고, 설교와 대표기도가 순서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4세기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역교회 공동체들에서 떠돌이 순회 목회자 개념의 전도자, 선지자, 교사가 사라지게 되었고, 여성 감독자와 목양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여섯째, 오늘날의 그리스도교 장로들은 16세기에 칼빈과 존 녹스의 평신도 장로 대의제 도입에서 비롯되었다. 이 무렵 그리스도교는 개인의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은 국가교회체제였기 때문에 제네바에서는 시의회가 전통에 따라 여성을 배제한 남성들만으로 치리 장로들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교회체제 아래에서조차 16세기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들은 임기가 제한된 평신도 선출직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원칙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개인의 신앙의 자유와 실용성이 강조되는 미국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일곱째, 신약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출입하는 유일한 문이시라는 점과 문이 그분의 육체임을 강조하고 있다(요 10:9, 히 10:20). 예수님은 문인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깨뜨리심으로써 하나님과 사람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담을 상징하는 지성소휘장을 갈라놓으심으로써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 색깔에 상관없이 누구나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히 10:19) 하였고,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히

10:22) “새로운 살 길”(히 10:20)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만인사제의 의미이다.

여덟째, 루터, 츠빙글리, 칼빈, 부처, 녹스는 본래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이었고, 국가종교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따라서 루터교회, 개혁교회, 영국교회가 다 국가종교였으며, 국가종교에 반대하여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파와 청교도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이를 근거로 시의회나 국가는 이들을 익사나 화형으로 다스렸다. 칼빈이 제네바에 세운 장로제도는 평신도 대의제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의해서 여성들을 배제시킨 채 남성들만으로 뽑힌 장로들이 평신도들의 신앙생활을 감시하고 징계하는 제도였다.

아홉째, ‘목사’라는 호칭은 ‘사제’라는 말을 ‘목사’로 바꾼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미사’를 ‘주의 만찬’으로 ‘제단’을 ‘성만찬상’으로 바꾼 개혁가였다. 이로써 그리스도교에서는 구약시대나 가톨릭미사에서처럼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제단도 사제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만인사제의 의미는 사제체제를 엄히 배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 종교개혁이후 그리스도교의 장로제도가 분명 평신도 대의제란 점에서 볼 때도 여성이 선출직 장로나 설교자 또는 전도자가 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열째, 여성 사역자들에 대한 제한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 여성 사역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에서도 부분적으로 동일하다.

## 【참고서적】

“Four branches of Judaism.”

[https://media.lanecce.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https://media.lanecce.edu/users/borrowdalej/rel203_f13/jewish_sects.html). [2018년 9월 16일 인용].

Judaism101. “Jewish Liturgy” 및 “Torah Readings.”

<http://www.jewfaq.org/readings.htm>. [2018년 9월 16일 인용].

Pliny Epistles 10.96 and 97. Richard Hooper Tr.

강원돈. '교역윤리 3: 교회 치리회 구성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 <강원돈의 신학아카이브>. <http://socialethics.org>, 에세이\_59번. 2010년 2월 22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왕대일. "예언자와 선지자 - 예언서 읽기(2)."

<기독교타임즈>.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9092>, 2003년 1월 23일 작성. [2018년 9월 18일 인용].

Lightfoot, J. B. The Apostolic Father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6.

Williams D. Newell. Et Al. The Encyclopedia of the Stone-Campbell Movement.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4.

Zuber, Glenn M. "Results of a 1988 Survey: Women as Deacons, Elders, and Ministers." The Christian Standard. Cincinnati: The Standard Publishing Co., August 6, 1989.

이형우 역주. <히벨리투스 사도전승>. 왜관: 분도출판사, 1992.

정남수외, <그리스도의 교회들 운동 대사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정양모 역주.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디다케>. 왜관: 분도출판사, 1993.